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金 容 載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內

‘經書’ · ‘諸子書’ 영역 분석

-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2014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漢文教育專攻

金 銀 珠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內
‘經書’ · ‘諸子書’ 영역 분석
-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金 容 載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3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漢文教育專攻

金 銀 珠

認 准 書

金銀珠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論 文 概 要

본 연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漢文科’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이에 따라 제작된 고등학교 『漢文1』 교과서內 採錄되어 있는 ‘經書’와 ‘諸子書’ 단원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漢文1』 교과서 內 ‘經書’와 ‘諸子書’를 다루고 있는 단원들의 ‘체제와 구성’, ‘글감의 수록현황’, ‘난이도 및 한문문법의 내용’, ‘교수학습법’ 등에 대하여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 보았다.

특히 본 연구가 고등학교 『漢文1』 교과서 내 수록된 ‘經書’와 ‘諸子書’ 영역을 분석하고자 했던 목적은, 최근 교육계의 화두라 할 수 있는 ‘人性教育’이라는 말에 가장 부합되는 부분이 ‘經書’와 ‘諸子書’ 영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人性教育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있는 古典은 역시 ‘經書와 諸子書’이며, 이러한 고전을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 현황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할 듯하여 이에 『漢文1』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었던 것이다.

연구자는 고등학교 『漢文1』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 영역이 무엇보다 (1)인성과 창의력, 그리고 (2)논술과 설득력 배양, (3)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옹골게 인식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교과서로 출간한 고등학교 『漢文1』 교과서 5종을 底本으로 연구하였으며, 이들 교과서의 체제와 내용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욱이 그동안의 교육과정 개편과 교과서 출간이 반복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經書’와 ‘諸子書’ 영역은 많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採錄된 글감마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일관되어 왔음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고등학교 『漢文1』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 영역을 다뤘던 기존의 연구성과가 매우 빈약하였고, 있다고 하여도 연구자가 寡聞한 탓인지 그 결과물들을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이에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김정 교과서로 엄선된 고등학교 『漢文1』 5종 교과서만을 主연구대상으로 본 연구를 천착하고자 했다.

한편 고등학교 ‘漢文’ 교과는 도구교과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經書’와 ‘諸子書’ 부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 가능한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漢文教科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영역과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漢文1』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 영역에서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도법에 대해서도 소박한 연구 성과를 수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취지下에 이 논문은 ‘Ⅱ장, Ⅲ장, Ⅳ장’에 중점 내용들을 분석·기술하였다.

제Ⅱ장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漢文科’ 교육의 목표와 성격, 그리고 ‘經書’와 ‘諸子書’ 영역에서의 교육지침 및 내용체계 등을 분석해 보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 기술된 내용중에서 ‘思想類 한문(고전)’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고자 했으나, 2007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思想類 한문(고전)만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찾아내었다. 이에 ‘한문산문’ 영역 안에 ‘思想類’를 함께 포함하여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부분에서의 ‘經書’와 ‘諸子書’ 영역에 대한 교육지침을 분석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한문산문’의 정의와 목표에 따르면 ‘經書’와 ‘諸子書’ 영역에서의 교육목표는 대략 4가지로 압축할 수 있었다. ‘①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②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며, ③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④전통문화의 이해와 창조적 계승을 할 수 있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와 교육지침에 도달하고자 제작된 고등학교 『漢文1』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 단원 분석이 본 연구의 시발점이 된 셈이다.

이어 제Ⅲ장에서는 첫째, 고등학교 『漢文1』 김정교과(5종)內 채록되어 있는 ‘經書’와 ‘諸子書’ 글감들을 총망라하여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타의 제자서 보다 『論語』 경문이 압도적인 빈도수로 많이 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論語』 경문의 경우, 우선 글이 짧기 때문에 직역을 통한 문장풀이가 가능하고, 학습자들로부터 한문문장 속에 숨어 있는 철학적 의미를 찾을 필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論語』 경문은 孔子와 弟子간의 語錄體 구문으로서, 斷章取義할 수 있는 글감이 많은 것도 그 이유로 작용하였다.

둘째, 단원의 체제와 구성방식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經書’와 ‘諸子書’ 영역은 대부분 전체 단원 가운데 거의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대단원을 설정하여 자리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시간에 쏠 단원을 온전하게 학습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7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원 ‘읽기’와 ‘문화’ 영역의 신설이었다. 이에 경서는 특히 ‘懸吐’와 ‘句讀’의 표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懸吐’에는 정답이 없으나, ‘經書’의 懸吐는 대략 정해진 저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교과서에서는 한결같이 ‘읽기’ 학습을 강조하기 위하여 현토와 구두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과서 구성 차원에서 볼 때 별도의 면을 할애하여 ‘문화읽기’ 코너를 마련해 놓았다.

셋째, 채록된 원문의 난이도를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글감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조사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한문학습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많은 분량을 학습하는 것은 선택과목인 지금의 교육현실에 있어서 학습자에게 딱딱하고 어려우며, 하기 싫은

‘漢文’ 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학습자에게 적절한 분량과 내용,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글감을 선별하는 것은 漢文教育의 시급한 당면 과제일 것이다.

넷째, 교과서에 나타난 한문지식과 문법내용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문지식과 문법내용은 본문의 독해학습에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별로 없었으며,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매우 소략하여 학습자가 자기주도학습을 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교과서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한문지식과 문법내용을 지나치게 많이 기술하여 학습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 역시 적절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문지식은 교과서 본문의 독해를 위해서라도 해당 단원 내에서 어느 정도 소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5종의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 단원의 효율적인 교수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수방법을 찾고자하였다. i) ‘독해’학습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끊어 읽기가 중요하므로 모든 교과서에서 현토를 하고 있다. 多義語인 한자가 문장에서 어떤 음과 뜻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다. 바른 독해를 방해하는 것의 하나로 문법적 요소인데 대부분의 교과서가 문법적 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교과서가 있어 아쉬움이 있다. ii) 漢文教科가 교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입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제2외국어 영역에 다른 외국어 교과와 편성되어 있으나 선택이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漢文教科의 ‘經書’와 ‘諸子書’ 교육목표는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바른 가치관과 인성함양이다. 바로 이러한 가치관과 인성의 문제가 ‘經書’와 ‘諸子書’ 단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가치관과 인성 문제는 대입과정에서의 논리논술문제로 활용하기 좋은 자료가 되어줄 것이다. 논술을 강조하고 있는 대학

입시에서 漢文敎科의 ‘經書’와 ‘諸子書’ 단원은 그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iii) 문화읽기자료를 통한 교수방법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화’영역의 신설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교과서에서 ‘문화’코너를 만들어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글로 된 자료는 학습자가 본문이해를 돕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동양문화에 대한 자료도 많아 漢字文化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 한번 읽고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iv) 단원 목표가 평가에 얼마나 투영되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단원목표에서 제시된 것은 평가를 통하여 목표가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나, 단지 목표와는 상관없이 문장풀이, 단어풀이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사고력을 확장시키며 학습목표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제시한 교과서도 있어 고무적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7 개정 漢文科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5종의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 영역의 분석과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 나누어 분석 해 보았으나 소략한 부분이 많다. 사상류 한문(고전)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인간성 상실과 이기주의 팽배 등의 현실문제에 무엇인가의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역할이 숨어 있다. 또한 ‘經書’와 ‘諸子書’ 교육은 창의인성문제에도 가장 적절한 형태로 부합 가능한 영역이다. 漢文敎科에서 사상류 문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人性敎育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目 次

論文概要

I. 서론	1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4
II.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적 이해	8
1. 고등학교 ‘漢文科’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8
2. 교육과정內 ‘經書’와 ‘諸子書’ 부문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11
III.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 영역 분석	14
1. 글감의 수록 현황	14
2. 단원의 체제와 구성방식	20
3. 중복 문장과 난이도	34
4. 한문지식과 문법내용의 소화	39
IV. ‘經書’와 ‘諸子書’ 부문에서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	47
1. ‘독해’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49
2. ‘논리논술’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53
3. ‘문화읽기자료’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59
4. ‘자기주도학습 평가’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62
V. 결론	69

參考文獻	72
ABSTRACT	75

表 目 次

<표 1> 2007 개정 교육과정 『漢文 I』의 ‘성격’	8
<표 2> 2007 개정 교육과정 『漢文 I』의 ‘목표’	9
<표 3> 2007 개정 교육과정 『漢文 I』에서의 ‘한문산문’	12
<표 4> 2007 개정 교육과정 『漢文 II』에서의 ‘한문산문’	12
<표 5>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할 교과서 목록과 약호	14
<표 6>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 원문 수록 현황	14
<표 7>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의 출전별 출현빈도 현황	18
<표 8>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의 소단원 분량 및 위치	21
<표 9>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의 대단원 및 소단원명	22
<표 10>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 문장의 중복 문구	34
<표 11> 교과서內 중복인용 문장 중 ‘懸吐’가 다르게 표기된 문장	36
<표 12> 소단원별 ‘經書’와 ‘諸子書’ 본문분량 및 난이도	37
<표 13>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허사	40
<표 14> 『한문 I』 교과서에 출현하는 허사	40
<표 15> 『한문 I』 교과서 출현 문장성분 및 문장구조	43
<표 16> 『한문 I』 교과서 출현 수사법	44
<표 17> 『한문 I』 교과서 상의 품사의 활용	45
<표 18>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서술된 교수학습 방법	48
<표 19> 『한문 I』 교과서 문화읽기 자료	60
<표 20> ‘經書’와 ‘諸子書’ 단원의 학습목표	63

I. 序 論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1) 연구목적

朝鮮은 ‘儒敎’의 나라이며, 儒學을 修學한 선비들이 ‘위정자’였고 곧 ‘교육자’였다. 따라서 조선의 ‘사상’과 ‘문학’, 그리고 그들이 엮어 놓은 오백 년 동안의 ‘문화’는 모두 유학의 굴레와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의 역사관이 孔孟에 정통을 두어 道佛을 배척하였고, 그들의 文學觀 역시 經書에 바탕을 두고 이를 심미적으로 향유하는 멋스러움을 표출해 내었다.¹⁾ 조선 儒者들은 삶의 현실이라는 범주 안에서 선비로서의 행위를 최고의 준칙으로 삼았고, 五經과 四書を 통한 학문적 수양과 글쓰기, 그리고 창작의 고통을 통하여 수많은 작품을 양산해 내었다.²⁾

이와 같이 五經과 四書는 옛 선인들로부터 지금의 漢文敎育에 이르기까지 漢字漢文敎育의 표본이자 저본, 그리고 참고도서와 같은 역할을 자임해 오고 있었다. 그러면 五經과 四書는 과연 漢文敎育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부터 어떠한 敎育目標과 내용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五經은 그 내용이 심오하여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와 1800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한자들이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대신에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이 편재되어 있는 ‘諸子書’의 글감을 主연구대상으로

1) 김용재(2013), 「중고교 漢文 교과서에서의 ‘經書’ 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 『漢文古典研究』 제27집, 韓國漢文古典學會 (제 I 장 ‘서론’ 부분에서 재인용)

2) 이돈석(2011),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四書 교육 내용에 대한 고찰」, 『漢文古典研究』 제23집, 한국한문고전학회.

삼는다.³⁾

중고교 고등학교 漢文教科書 내에서 ‘經書’와 ‘諸子書’ 영역에서의 학습목표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함양’에 있다. 성장위주, 경쟁위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은 ‘우리’라는 단어보다 ‘나’라는 단어에 익숙해있고, 배려하려는 마음보다 나 자신부터 인정받고자하는 利己心이 팽배한 사회에 몰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육체적·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는 있겠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해졌으며, 스스로 판단하여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자제할 줄 아는 비판적 사고능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고등학교 현장에서 ‘漢文’ 교과서의 한 영역인 ‘經書’와 ‘諸子書’ 학습이 비판적 사고와 논리력, 그리고 설득력을 배양시켜주고, 나아가 건전한 가치관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본 연구의 밑바탕이 되었다. 비록 ‘經書’와 ‘諸子書’ 학습이 인성함양을 위해 좋은 자료가 되어준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선입관에 의하여 학습자가 딱딱하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마저 無用之物이 될 개연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문교과서에서의 ‘經書’와 ‘諸子書’ 글이 실려 있는 전통문화 영역을 어떠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좀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한 흔적을 남겨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內에 수록된 ‘經書’와 ‘諸子書’ 단원의 구성과 체계,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현황을 조사해보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첫째, 교과서 內 ‘經書’와 ‘諸子書’ 영역의 단원 체제와 구성

3) 그러나 본 논문은 중고교 한문교과서 내에서의 五經과 四書を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함이 아니고, 四書와 諸子書로 그 내용을 국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五經’은 중고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그 내용이 매우 어렵고, 기초교육용한자(900자와 1800자)外 한자가 많아 교과서 글감으로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의 목차와 본론 부분에서도 분석해 놓을 예정이지만, 五經(시, 서, 역, 예기, 춘추)을 출전으로 한 經文 글감은 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전개 양상에 대한 분석, 둘째, ‘經書’와 ‘諸子書’ 단원에 수록된 글감의 빈도수와 중복된 문구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글감의 난이도, 셋째, ‘經書’와 ‘諸子書’의 글감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적 내용, 넷째, ‘經書’와 ‘諸子書’등 전통 문화 영역을 효과적·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법 등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고등학교 『漢文 I』內 ‘經書’와 ‘諸子書’의 사상류 문장의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학교현장에서의 ‘經書’와 ‘諸子書’ 학습의 교수법의 문제점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교수학습 방법인가에 대하여 제언하는 형식을 취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 下에 제작·출간된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 5종을 저본으로 하여 조사·분석하기로 한다.

이미 중학교 과정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이며 고등학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4년에 시행될 예정이나, 본 연구가 2007 개정 교육과정 下에 제작·출간된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문과목의 교과적 특성과 정체성, 그리고 漢文教育이 하나의 학문적 체계에 부합하도록 내용체계를 재조직하여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제5차 교육과정 이래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적용되어 온 ‘한자, 한자어, 한문’의 세 영역 체제로부터 벗어나, ‘한문’과 ‘한문지식’의 두 영역 체제를 수용하였다는 점이 이에 대한 근거이다.⁴⁾ ‘한문’영역에서는 ‘입

4)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13』, 교육과학기술부, 8면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은 한문과목의 교과적 특성과 학문적 체계에 부합하도록 내용체계를 재조직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 이래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적용되어 온 ‘한자’, ‘한자어’, ‘한문’의 세 영역 체계는 영역들의 내포와 외연이 명료하지 않고 영역 설정의 기준 또한 모호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은 ‘한문’, ‘한문지식’의 두 영역 체제를 수용하였다. 곧, 한문과목의 학문적 성격을 고려하여 한문에 대한 언어적, 문학적, 사상적, 문화적 이해 전반을 ‘한문’영역으로 설정하되, 한문 과목의 언어적 특질을 고려하여 한문에 대한 문법적 이해 측면을 별도로 ‘한문지식’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새로운 영

기’, ‘이해’, ‘문화’로 설정하였고 ‘한문지식’영역은 ‘한자’, ‘어휘’, ‘문장’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큰 변화가 있었던 내용체계의 틀 속에서, 각 교과서들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격, 그리고 내용체계가 교과서에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후 변화된 내용체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연구하여 ‘經書’와 ‘諸子書’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⁵⁾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四書(『大學』·『論語』·『孟子』·『中庸』)와, 五經(『詩經』·『書經』·『易經』·『禮記』·『春秋』), 그리고 諸子書(『老子』·『莊子』·『墨子』·『荀子』·『韓非子』·『孫子』)까지의 문장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기존의 漢文 教科教育學 영역에서의 ‘經書’와 ‘諸子書’를 다룬 선행 연구를 찾아보고, 아울러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간된 한문교과서에 대한 연구물들을 조사해 보기로 한다.

전명희(2003)의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수록된 四書 연구」⁶⁾에서는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전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인성함양을 위해 고전학습에서 四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大學』에서는 三綱領 八條目, 『論語』에서는 君子와 仁, 『孟子』에서는 人性과 經世哲學, 『中庸』에서는 道の 본질·君子의 中庸, 孝와

역 체제에 따라 중영역의 성격과 그 내용 또한 재조직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은 중영역을 영역의 성격에 따라 ‘한문’ 영역은 ‘읽기’, ‘이해’, ‘문화’로 설정하고, ‘한문지식’ 영역은 ‘한자’, ‘어휘’, ‘문장’으로 설정하였다.

5) ‘經書’와 ‘諸子書’ 단원 외에서의 짧은 문장은 출현빈도를 분석하는 자료로 사용하였고, 주로 ‘經書’와 ‘諸子書’ 단원 안에서의 課文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6) 전명희(2003),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수록된 사서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誠으로 나누어 四書에서 제시하는 聖賢의 가르침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성 함양에 그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원윤숙(2004)의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보이는 四書 經文의 내용과 효율적 지도방안」⁷⁾에서는 한문교육에서의 經典教育 현황과 바람직한 교육방법을 찾는 것을 연구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7차 教育課程 하에 출간된 『漢文』 교과서 10종과 『漢文古典』 1종에 수록된 四書經文 내용을 시대변화에 따른 지도상의 쟁점, 성장단계에서의 지도상의 쟁점, 교과서와 지도서에서의 지도상의 쟁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經典教育의 기준과 대안을 현대적 관점에 맞추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손인도(2005)의 「중등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論語』의 해석에 대한 연구」⁸⁾에서는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論語』 구절을 仁, 학문과 개인수양, 인간관계, 정치 등의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으며, 나아가 『論語』의 현대적 의미를 찾고 지금의 시점에서 經典教育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최일순(2011)의 「토론과 논술을 활용한 한문과 교육방법 연구: 『孟子』 출전 본문을 중심으로」⁹⁾에서는 學校現場에서 思想類 산문에 대한 수업의 내실 있는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진단하고, 본문의 어구풀이를 통한 의미전달에 그치고 사상적인 측면의 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哲學的 意味를 학습자에게 안내하고 반성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제공의 방법으로서 토론과 논술을 활용한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성과를 도출해 내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자 연구라 사료된다. 이에 따른 수업모형으로 1차시에는

7) 원윤숙(2004),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보이는 사서경문의 내용과 효율적 지도방안」,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8) 손인도(2005), 「중등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論語의 해석에 대한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9) 최일순(2011), 「토론과 논술을 활용한 한문과 교육방법 연구: 『孟子』 출전 본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본문학습’, 2차시에는 ‘토론을 활용한 수업’, 3차시에는 ‘논술을 활용한 수업’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2개 班을 추출하여 質的研究를 시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일반화 이론을 정립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향후의 연구를 기대하며 고등정신 능력과 창의성을 함양시킬 수 있고 학습자가 작성한 논술문은 학습자의 인성교육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전연교(2011)의 「중학교1 한문 교과서 四書經文 의미 분석: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¹⁰⁾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2007 개정 교육과정 1학년 한문교과서 15종을 바탕으로 四書의 활용빈도를 비교해내고 있다. 또한 수록된 四書의 글감을 토대로 개인윤리, 가정윤리, 사회윤리로 나누어서 仁, 수양, 배움, 효도, 예의, 교우로 분류하였고, 학급 간 또는 학년 간 난이도와 위계를 고려하여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최적의 경문을 찾아보는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孟子』와 『中庸』의 비중이 7차 교육과정보다 늘어난 것에 대하여 그 의의를 서술해냈으며, 역시 『論語』 문장이 짧으면서도 교훈점이 많아서인지 다른 四書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식(2012)의 「역대 한문교과서에 인용된 경서 구절 연구」¹¹⁾에서는 1차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한문교과서內的 四書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본질적으로 탐구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仁’과 ‘배움’을 중시하는 정서적 교육에 효과가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교훈을 주는 긍정적인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¹²⁾

10) 전연교(2011), 「중학교 1 한문 교과서 사서 경문 의미분석: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11) 이호식(2012), 「역대 한문교과서에 인용된 경서 구절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세월과 사람이 바뀌었지만 지적인 정신세계는 현대인을 능가하는 면이 있는 선인들의 가치관을 배우고 인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한문교과서에서의 思想類 연구는 ‘四書’의 내용에 관련된 논문이 많은 편이다. ‘四書’ 관련 연구가 ‘漢文’ 교과목의 목표인 “선인들과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인성함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¹³⁾와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2007 개정 교육과정 하에 출간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內에서의 ‘思想類’에 관한 연구논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실정이다.

13) 교육인적자원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13』, 교육과학기술부, 14면 참조.

Ⅱ.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적 이해

1. 고등학교 ‘漢文科’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고등학교 漢文教科書에서의 ‘經書’와 ‘諸子書’ 영역에 대한 분석에 앞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目標와 性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목적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教育目標와 性格에 맞추어 ‘漢文教科書’가 그 내용을 적절하게 부합하여 출간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일차적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한문 교과서 내에서 ‘經書’와 ‘諸子書’를 담보하고 있는 단원들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서술하고 있는 교육목표와 성격에 합치될 수 있도록 글감과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또 얼마큼 효율적으로 담아내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데에 이차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타난 ‘고등학교 『漢文 I』’의 성격과 목표를 찾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2007 개정 교육과정 『漢文 I』의 ‘성격’

<고등학교 『漢文 I』의 성격> 14)

- 고등학교 『한문 I』의 성격은 중학교 한문교육의 성과 위에서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를 중심으로 중학교 ‘한문’에 비해 심화된 한문 독해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둔다.
-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字를 바탕으로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또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의한다.

<표 2> 2007 개정 교육과정 『漢文 I』의 ‘목표’

〈고등학교 『漢文 I』의 목표〉 15)

- 『한문 I』의 목표는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또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첫째, “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字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개정교과서에서는 고등학교 ‘漢文 I’의 내용영역을 ‘한문’, ‘한문지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항목은 ‘한문’, ‘한문지식’ 영역에서 모두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둘째,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 항목은 ‘한문 지식’ 영역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된 것이다. 셋째,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傳統文化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다섯째, 漢字文化圈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 중 셋째, 넷째, 다섯째는 ‘한문’영역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된 것이다.¹⁶⁾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目標들 가운데에서 특히 ①‘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②바람직한 인성을 함양시키고, ③ 전통문화의 이해와 창조적 계승’이라는 부분이 ‘經書’와 ‘諸子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는 것임을 알고,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14)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13』, 교육과학기술부, 14면.

15)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13』, 교육과학기술부, 14면.

16)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13』, 교육과학기술부, 14~15면.

위하여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서는 글감들을 어떻게 선정하였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첫째,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의 문장의 경우가 학습자에게 인생을 향유해가는 지혜를 줄 수 있으며, ‘己所不欲勿施於人’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마음이 짐을 가지고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는 문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함양을 위한 글감으로는 “군자란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 남의 악을 이루어주지 않는다”의 “成人之美 不成人之惡”¹⁷⁾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¹⁸⁾는 “군자는 두루 어울리나 편을 가르지 않고, 소인은 편을 가르나 두루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통하여 타인의 선을 돕고 공평한 인간관계의 정형을 교육하고자 하는 데에 최적의 글감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傳統文化의 계승이라는 教育目標는 딱히 교과서 안의 한문 원문을 통하여 구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문화’와 관련된 코너나 읽기 자료들을 통하여 각 교과서들이 傳統文化를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있는지를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5종)의 글감의 분석을 통하여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가 고교 교과서에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글감은 최적의 선별을 거쳤다고 할 수 있는지, 교과서 안의 ‘經書’와 ‘諸子書’ 원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7) 『논어』「顔淵」子曰“君子之美 不成人之惡 小人 反是”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 남의 악을 이루어주지 않으니, 소인은 이와 반대이다.”

18) 『논어』,「爲政」子曰“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두루 사랑하고 편당하지 않으며, 소인은 편당하고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

2. 교육과정內 ‘經書’와 ‘諸子書’ 부문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1972년 ‘漢文’이 독립 교과로 인정된 이후,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이에 따라 교육내용을 담보하는 교과서가 수차례 제작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교과서內 수록된 한문 문장, 소위 ‘글감’에 대한 질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¹⁹⁾ 특히 수차례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漢文教科書 내용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모를 거듭해 왔지만, 그간의 교과서 내용은 거의 동일시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²⁰⁾ 특히 ‘經書’ 영역에 대해서는 經文의 양적 팽창만 있을 뿐, 기존의 수록된 經文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일관되어 왔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반성적 고찰이 필요한 부분은 ‘經書教育’에 대한 교육목표·교육내용·평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혹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내용이 매우 소략하였다.²¹⁾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經書’·‘諸子書’·‘思想類’ 영역에 대한 지침 내용을 면밀히 살핀 후,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교과서의 글감들이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자못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해설서에 드러난 ‘사상류’에 대한 정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해설서에서는 ‘思想類’만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

19) 김용재(2013), 「중고교 漢文 교과서에서의 ‘經書’ 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 『漢文古典研究』 제27집, 韓國漢文古典學會 (제II장 ‘漢文科 教育과정內에서 ‘經書’ 교육 지침’ 부분에서 재인용)

20)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이돈석(2011),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사서 교육 내용에 대한 고찰」, 『한문고전연구』, 제23집, 이동재(2007)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한문교과서 개발의 방향」, 『한자한문교육연구』, 제1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원용석(2004)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내용 및 수준의 문제 고찰」, 『한자한문교육연구』 제13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장호성(2004) 「한문과 교재의 문제」, 『한문교육연구』 제22집, 한국한문교육학회 등이 있다.

21) 김용재(2013), 「중고교 漢文 교과서에서의 ‘經書’ 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 『漢文古典研究』 제27집, 韓國漢文古典學會 (제II장 ‘漢文科 教育과정內에서 ‘經書’ 교육 지침’ 부분에서 재인용)

았으며, ‘한문산문’ 영역 속에 ‘思想類’를 함께 포함하여 다루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문산문의 정의와 목표를 살펴보는 것이 곧 ‘經書’와 ‘諸子書’ 및 ‘思想類’ 문장의 정의와 목표를 알 수 있는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등학교 『漢文Ⅰ』교과서와 『漢文Ⅱ』 교과서內 ‘한문산문’의 정의와 목표는 아래와 같다.

<표 3> 2007 개정 교육과정 『漢文Ⅰ』에서의 ‘한문산문’

- 한문산문은 자수(字數)나 운율(韻律) 등의 외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로 압운(押韻)을 하는 글인 운문(韻文)이나 압운을 하지는 않지만 성률(聲律)과 대우법(對偶法)을 강구하는 변문과 상대되는 글을 말한다.²²⁾
- 설리문(說理文)은 사리(事理)를 밝히거나 시비(是非)를 가리는 문체를 말한다. 설리문에 속하는 문체로는 유가의 경전(經典)이나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철학적 저술등과 같이 장편의 저서를 통하여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을 천명하는 각종 사상류 산문을 비롯하여 논(論), 변(辨), 설(說), 원(原)등이 있다.²³⁾

<표 4> 2007 개정 교육과정 『漢文Ⅱ』에서의 ‘한문산문’

- 한문산문은 자수(字數)나 운율(韻律) 등의 외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문체를 말한다.²⁴⁾
- 설리문(說理文)은 사리(事理)를 밝히거나 시비(是非)를 가리는 문체를 말한다. 설리문에 속하는 문체로는 각종 사상류(思想類) 산문을 비롯하여 논(論), 변(辨), 설(說), 원(原)등이 있다. ‘사상류 산문’은 유가(儒家)의 경전(經典)이나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철학적 저술등과 같이 장편의 저서를 통하여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을 천명하는 글을 말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논어(論語)』, 『맹자(孟子)』, 『장자(莊子)』, 『순자(荀子)』 등이 있다.²⁵⁾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 ‘사상류’ 문장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위의

22) 교육과학기술부(2008),『고등학교교육과정해설서13』, 교육과학기술부, 27면

23) 교육과학기술부(2008),『고등학교교육과정해설서13』, 교육과학기술부, 27면

24) 교육과학기술부(2008),『고등학교교육과정해설서13』, 교육과학기술부, 87면

25) 교육과학기술부(2008),『고등학교교육과정해설서13』, 교육과학기술부, 88면

표에 기술할 정도로 소략하다. 앞 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經書’와 ‘諸子書’ 학습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역할은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傳統文化를 바르게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부분에 있다. 한문 기록 속에는 특히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인간소외, 물질만능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환경문제 등의 가치관 혼란 및 인간성 상실을 치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해결과 자정작용의 역할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經書의 글감이나 思想類 문장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思想類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教育課程에도 많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다.

教育課程에서는 ‘經典’이나 ‘諸子百家’ 등 思想類를 ‘說理文’이라고 언급하고, 이 ‘설리문’에 속하는 문체로 儒家의 經典이나 諸子百家의 철학적 저서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說理文’은 산문으로서 教育課程 내용체계의 ‘한문영역’의 ‘읽기’와 ‘이해’에서 한문텍스트를 ‘단문’, ‘산문’, ‘한시’ 세 종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읽기와 풀이’, ‘이해와 감상’을 내용요소로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經書·諸子書에 대한 정의와 목표, 내용 등에 대한 연구는 ‘산문’의 내용요소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²⁶⁾

2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체류 구분에 따라 哲理散文에 해당하는 ‘經書’와 ‘諸子書’ 이외에도 사상류 글감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四書인 『大學』, 『論語』, 『孟子』, 『中庸』, 五經인 『詩經』, 『書經』, 『易經』, 『禮記』, 『春秋』, 그리고 諸子書로 많이 알려진 『老子』, 『莊子』, 『墨子』, 『荀子』, 『韓非子』, 『孫子』까지의 문장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Ⅲ.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 영역 분석

1. 글감의 수록 현황

본 연구의 자료이자 저본으로 활용하게 될 고등학교 『漢文 I』(5종) 교과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후부터 각 교과서의 ‘略號’(㉠~㉤)를 명칭으로 대신한다.²⁷⁾

<표 5>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할 교과서 목록과 약호

기호	출판사	저자
㉠	교학사	김언중, 조영호, 박영숙
㉡	다락원	송재소, 조병덕, 배기표, 김호기, 변유경
㉢	대학서림	신표섭, 이윤찬, 성진우, 김준영, 홍인기
㉣	더텍스트	김용재, 류준필, 류준경, 권오순, 김상선, 김영선
㉤	두산동아	박성규, 윤재민, 백광호, 최승후

각 교과서에 수록된 사서 經文과 諸子書의 원문 수록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후 아래의 자료를 통하여 ‘經書’와 ‘諸子書’ 글감을 분석하겠다.

<표 6>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 원문 수록 현황 28)

書名	四書 經文 및 諸子書 原文	교과서
논어	○知之者는 不如好之者요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라.	㉠: II-4과 ㉡: IV-24과
	○子曰 君子는 成人之美하고 不成人之惡하나니 小仁은 反是니라. 「안연」	㉠: XI-32과
	○子曰 君子는 周而不比요 小人은 比而不周니라. 「위정」	㉠: XI-32과

27) 김용재(2013), 「중고교 漢文 교과서에서의 ‘經書’ 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 『漢文古典研究』 제27집, 韓國漢文古典學會 (제1장 ‘서론’ 부분에서 재인용)

28) 김용재, 「중고교 漢文 교과서에서의 ‘經書’ 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 『漢文古典研究』 제27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2. (제Ⅲ장 ‘교과서內 수록된 경문의 諸분석과 특징’에서 밝혀 놓은 자료 목록을 재인용), 篇名이 누락되거나 현토는 교과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표기함.

	○子曰 君子는 志士仁人은 無求生以割仁이요 有殺身以成仁이니라. 「위령공」	㉔:XI-32과
	○夫仁者는 己欲立而立人하며 己欲達而達人이니라. 「옹야」	㉔:XI-32과 ㉔:VII-16과
	○子曰 富與貴는 是人之所欲也나 不以其道得之어든 不處也하며, 貧與賤은 是人之所惡也나 不以其道得之라도 不去也니라.君子去仁이면 惡乎成名이 리요? 「이인」	㉔:XI-32과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 「위령공」	㉔:III-7과 ㉔:VII-16과
	○學而不思則罔하고 思而不學則殆니라. 「위정」	㉔:IV-24과
	○不患人之不己知요, 患不知人也니라. 「학이」	㉔:IV-24과
	○由야 誨女知之乎인저. 知之爲知之요 不知爲不知가,是知也니라.	㉔:IV-24과
	○欲速則不達하고 見小利則大事大成이니라.	㉔:II-3과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야.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야.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야. 「학이」	㉔:VII-16과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야? <주자> 學之爲言은 效也라.<중략> 習은 鳥數飛也니 學之不巳를 如鳥數飛也라. 說은 喜意也라. <다산> 學은 受敎也라.習은 肄業也니 時習은 以時習之也라. 說은 心快也라.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야? <주자> 朋은 同類也라. <다산> 朋은 同道者也라. 自遠方來면 則其人必豪傑이요 致之者亦賢哲也라. 樂은 深喜也라.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야? <주자> 慍은 含怒意라. 君子는 成德之名이니라. <다산> 人不知는 謂人不知我之學成也라. 慍은 心有所蘊結也라. 君子는 有德之稱이니라. 「학이」	㉔:X-33
	○三人行에 必有我師焉이니 擇其善者而從之요 其不善者而改之니라. 「술이」	㉔:VII-16과
	○躬自厚而薄責於人이면 則遠怨矣니라. 「위령공」	㉔:VII-16과
	○己欲立而立人하고 己欲達而達人하라. 「옹야」	㉔:VII-16과
	○子貢이 問“師與商也孰賢이니잇고?” 子曰 “師也는 過하고 商也는 不及이니라.” 曰 “然則師愈與인가?” 子曰 “過猶不及이니라”	㉔:IV-11
	○敏於事而慎於言이라.	㉔:II-5
	○孔子曰, “君子가 有九思하니 視思明하며 聽思聰하며 色思溫하며 貌思恭하며 言思忠하며 事思敬하며 疑思問하며 忿思難하며 見得思義니라.”	㉔:III-10
	○子曰, “篤信好學하며 守死善道니라. 危邦不入하고 亂邦不居하며, 天下有道則見하고 無道則隱이니라. 邦有道에 貧且賤焉이 恥也며 邦無道에 富且貴焉이 恥也니라. 「태백」	㉔:VIII-24
	○子謂顔淵曰, “用之則行하고 舍之則藏을 惟我與爾가 有是夫인저!” 子曰, “子行三軍이면 則誰與시리잇고?” 子曰, “暴虎憑河하여 死而無悔者를 吾不與也니 必也臨事而懼하며 好謀而成者也니라.” 「술이」	㉔:VIII-24
맹자	○夫人必自侮然後에 人侮之라.	㉔:II-4과
	○居天下之廣居하며 立天下之正位하며 行天下之大道하여 得志하면 與民由之하고 不得志하면 獨行其道라. 富貴도 不能淫하며 貧賤도 不能移하며 威武도 不能屈하니 此之謂大丈夫니라. 「등문공」	㉔:XI-33과

	○生亦我所欲也며 義亦我所欲也이나 二者를 不可得兼이면 舍生而取義者也 하리라. 「고자」	㉔:XI-33과
	○我는善養吾 ‘浩然之氣’하노라(중략)其爲氣也가 至大至剛하니 以直養而無害면 則塞于天地之間이니라. 其爲氣也가 配義與道하니 無是면 餒也이니 是集義所生者라. 「공손추」	㉔:XI-33과
	○道在爾而求諸遠하며 事在易而求諸難하니 人人이 親其親 하고 長其長이면 而天下平하리라.	㉔:IV-24과
	○君子所以異於人者는 以其存心也니 君子는 以仁存心하며 以禮存心이니라.	㉔:IV-24과
	仁者는 愛人하고 有禮者는 敬人하니 愛人者는 人恒愛之하고 敬人者는 人恒敬之니라.	㉔:IV-24과
	○或百步而後止하며 或五十步而後止하여 以五十步로 笑百步면 則何如하니 잇고” 曰:“不可하니, 直不百步耳언정 是亦走也라.” 「梁惠王」	㉔: I -2과
	○無恒産而有恒心者는惟士爲能이니라.若民則無恒産이면因無恒心이니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已이니 及陷於罪한 然後에 從而刑之면 是罔民也니 焉有仁人在位하여 罔民而可爲也리오. 是故로 明君이 制民之産하되 必使仰足以事父母하며 俯足以畜妻子하여 樂歲에 終身飽하고 凶年에 免於死亡하니라 然後에 驅而之善이라. 故로 民之從之也輕하니이다.	㉔:VII-17과
	○恭者는 不侮人하고 儉者는 不奪人하니라.	㉔:II -6
	○人性之善也가 猶水之就下也니 人無有不善하며 水無有不下니라 今夫水를 搏而躍之면 可使過顛하고 激而行之면 可使在山하니 是豈水之性哉리오. 其勢則然也니 人之可使爲不善이 其性亦猶是也니라.	㉔: X -34
	○孟子見梁惠王하신대 王曰, “叟不遠千里而來하시니 亦將有以利吾國乎잇가?” 孟子對曰 “王은何必曰利잇고? 亦有仁義而已矣니이다. 王曰, 何以利吾國고?”하시면 大夫曰, ‘何以利吾家오?’ 하며, 士庶人曰, ‘何以利吾身고?’ 하여 上下交征利면 而國危矣리이다. 萬乘之國에 弑其君者는 必千乘之家 이오 千乘之國에 弑其君者는 必百乘之家니, 萬取千焉하며, 千取百焉이不爲不多矣언마는苟爲後義而先利면 不奪하여는 不鑿이니이다. 未有仁而遺其親者也며 未有義而後其君者也니이다. 王은 亦曰仁義而已矣시니 何必曰利잇고	㉔:VIII-25
대학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親民하며 在止於至善이니라. 知止而后有定이니 定而后能靜하며 靜而后能安하며 安而后能慮하며 慮而后能得이니라, 物有本末하고 事有終始하니 知所先後면 則近道矣리라.	㉔:VIII-23과
	大學之書는 古之大學에 所以教人之法也라. 蓋自天降生民으로 則既不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언마는 然이나 其氣質之稟이 或不能齊라.是以로 不能皆有以知其性之所有而全之也라. 一有聰明睿智能盡其性者가 出於其間이면 則天必命之하사 以爲億兆之君師하여 使之治而教之하여 以復其性케 하시니라.	㉔:IX-30과
중용	○人一能之어든 己百之하며 人十能之어든 己千之니라.	㉔:II -4과
	○天命之謂性이요 率性之謂道요 修道之謂教니라. 道也者는 不可須臾離也니 可離면 非道也라. 是故로 君子는 戒愼乎其所不睹하며 恐懼乎其所不聞이니라. 莫見乎隱이며 莫顯乎微니 故로 君子는 慎其獨也니라.	㉔:VIII-23과
주역	□安而不忘危요 存而不忘亡이요 治而不忘亂이라.	㉔:II -4과
	□積善之家에 必有餘慶이라.	㉔:III-7과
시경	□他山之石이라도 可以攻玉이라.	㉔:II -4과
서경	□滿招損이요 謙受益이라.	㉔:II -5과
예기	□玉不琢하면 不成器하고 人不學하면 不知道하니라.	㉔:III-7과

춘추	□宋人 ¹ 或得玉하여 獻諸子罕하니 子罕不受라. 獻玉者曰 “以示玉人하니 玉人以爲寶也라. 故로 敢獻之라.” 子罕曰 “我以不貪爲寶요 爾以玉爲寶라. 若以與我면 皆喪寶也니 不若人有其寶라.”	㉔:II-3과
노자	□勝人者는 有力하고 自勝者는 強이라.	㉔:II-4과
	□上善若水라. 水善利萬物而不爭하고 處衆人之所惡하니 故幾於道라. 「도덕경」	㉔:XI-34과
	□上善若水하니 水善利萬物而不爭하며 處衆人之所惡라. 故幾於道니라. 居善地하고 心善淵하고 與善仁하고 言善信하고 正善治하고 事善能하고 動善時라. 夫唯不爭하니 故無尤니라.	㉔:IV-25과
	□人法地하고 地法天하고 天法道하고 道法自然이니라. 道常無爲로되 而無不爲니라. 上善若水라. 水善利萬物而不爭하고 處衆人之所惡하니 故幾於道라. 小國寡民이라. 使有什伯之器而不用하고 使民重死而不遠徙니라. 天下皆知美之爲美나 斯惡已니라. 皆知善之爲善이나 斯不善已니라.	㉔:VII-18과
	□絶聖棄智라야 民利百倍하며, 絶仁棄義라야 民復孝慈하며 絶巧棄利라야 盜賊無有니라. 此三者는 以爲文不足이라. 故令有所屬이니 見素抱樸하며 少私寡欲이니라.	㉔:VIII-26
장자	□不知周之夢爲胡蝶與아? 胡蝶之夢爲周與아? 周與胡蝶이 則必有分矣로되 此之謂物化라.	㉔:XI-34과
	□吾聞之吾師하니 有機械者는 必有機事하고 有機事者는 必有機心이라. 機心存於胸中이면 則純白不備하고 純白不備면 則神生不定하니 神生不定者는 道之所不載也라 하다. 吾非不知요 羞而不爲也라.	㉔:IV-25과
	□昔者에 莊周가 夢爲胡蝶하니 栩栩然胡蝶也러라. 自喻適志與아? 不知周也러라. 俄然覺하니 則芥蘧蘧然周也러라. 不知케라. 周之夢爲胡蝶與아? 胡蝶之夢爲周與아? 周與胡蝶은 則必有分矣니 此之爲物化니라.	㉔:VIII-26
순자	□禮起於何也오? 曰人生而有欲이니 欲而不得하면 則不能無求요 求而無度量分界면 則不能不爭이라. 爭則亂하고 亂則窮하니 先王惡其亂也하여 故制禮義以分之라.	㉔:XI-34과
	□君者舟也요 庶人者水也라. 水則載舟하고 水則覆舟니라.	㉔:II-4과
	□人之性은 惡이니 其善者는 僞也라. 今에 人之性이 生而有好利焉인데 順是인 故로 爭奪生而辭讓亡焉하며 生而有疾惡焉인데 順是인 故로 殘賊生而故忠信亡焉하며 生而有耳目之欲하고 有好聲色焉인데 順是인 故로 淫亂生而禮義文理亡焉하니라.	㉔:X-34
한비자	□昔者에 彌子瑕有寵於衛君이라. 衛國之法에 竊駕君車者는 罪刑이러라. 彌子瑕母病이어늘 人間往夜告彌子하니 彌子矯駕君車以出한데 君이 聞而賢之曰 “孝哉로다. 爲母之故로 忘其刑罪로다.” 異日에 與君遊於果園한데 食桃而甘하여 不盡하고 以其半啗君하니 君曰 “愛我哉로다. 忘其口味하고 以啗寡人이러라.” 及彌子色衰愛弛할새 得罪於君하니 君曰 “是는 固嘗矯駕吾車하고 又嘗啗我以餘桃니라” 故로 彌子之行은 未變於初也이나 而以前之所以見賢하고 而後獲罪者는 愛憎之變也일새니라.	㉔:X-35
	□宋人 ¹ 에 有耕田者러니 田中有株하야, 兔走觸株하야 折頸而死어늘 因釋其耒而守株하야 冀復得兔나 兔不可復得하고 而身爲宋國笑라.	㉔:V-14과
묵자	□若使天下兼相愛하면 國與國이 不相攻하고 家與家가 不相亂하여 盜賊無有하고 君臣父子 皆能孝慈리니 若此면 則天下治리라.	㉔:XI-34과
	□若使天下兼相愛하면 國與國이 不相攻하고 家與家가 不相亂하여 盜賊無有하고 君臣父子 皆能孝慈리니 若此면 則天下治리니 故로 聖人以治天下爲事者가 惡得 不禁惡而勸愛리오? 故로 天下兼相愛면 則治하고 相惡면 則亂이라.	㉔:IV-26과

손자	□百戰百勝은 非善之善者也요 不戰而屈人之兵이 善之善者也라. 知彼知己면 百戰不殆요 不知彼而知己면 一勝一負요 不知彼不知己면 每戰必敗니라.	㉔:IV-26과
----	---	----------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하여, 우선 교과서 글감으로 선정된 ‘출전’들의 빈도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교과서 글감으로 최적의 원문이 가장 많이 실린다는 것은 그만큼 經書教育에 관한 활용가치가 높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 『論語』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孟子』와 여타의 諸子書들이 이어 나갔다. 아래의 표는 <표 6>을 정리하여 ‘經書’와 ‘諸子書’의 출현 빈도수를 작성한 것이다.

<표 7>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의 출전별 출현빈도 현황

교과서 출전	교과서					합계
	㉑	㉒	㉓	㉔	㉕	
논어	6	5	6	2	4	23
맹자	4	3	2	2	1	12
대학	0	0	0	1	1	1
중용	1	0	0	0	1	2
시경	1	0	0	0	0	1
서경	0	0	0	0	1	0
역경	1	1	0	0	0	2
예기	0	1	0	0	0	1
춘추	0	0	1	0	0	1
노자	2	1	1	0	1	5
장자	1	1	0	0	1	3
순자	1	0	1	1	0	3
한비자	0	0	0	1	1	2
묵자	1	1	0	0	0	2
합계	18	13	11	7	11	58

위와 같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간된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 안에서의 ‘經書’와 ‘諸子書’ 출현 빈도는 『論語』가 23회, 『孟子』가 12회로 다른 諸子書보다 현격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다.²⁹⁾ 또한 유독 『論語』와 『孟子』만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書經』은 어떤 교과서에도 수록되

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書經』의 글감이 어려운 내용이 많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한자 또한 교육용 한자 900자 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書經』은 고대의 제왕이나 현자들의 공식 발언과 사건을 기록한 역사서로서 학습자에게 한문교육용 교과서로 활용하기에는 教育課程과의 일치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에서 인용한 ‘經書’와 ‘諸子書’의 글감은 총 18회로 가장 많았고, ㉡교과서는 13회로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에, ㉢교과서가 ‘經書’와 ‘諸子書’ 문장의 인용 빈도가 낮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교과서처럼 ㉣교과서도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經書’와 ‘諸子書’ 단원 외의 단원에서 ‘短文’으로도 언급하는 예가 많지 않았으니, 즉 ‘經書’와 ‘諸子書’의 원문에서 斷章取義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한편, 다른 교과서들이 經書 관련 단원을 모두 3개의 소단원으로 편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교과서만 4개의 소단원으로 편성되어 있음이 특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도 ‘經書’와 ‘諸子書’ 인용 빈도는 최고 수치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 이유 역시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여타의 단원에서 ‘經書’와 ‘諸子書’의 글감에서 斷章取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漢文 I』교과서가 총 5종이고, 또 그 안에 『論語』와 『孟子』의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論語』는 다른 諸子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문장이기 때문이며, 또한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인생의 노정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간상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論語』는 본래 성인 孔子와 弟子들 또는 문인들 간의 주고받은 대화체 구문이 많아 한문문장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먼저 직역을 통하여 문장 해석에 전념하고, 이후 그 이면에 담겨진 철학적 의미를 전달하기가 다른 經書나 諸子書보다 수월하

29) 출현빈도에서는 ‘經書’와 ‘諸子書’ 대단원의 인용문구 뿐 만 아니라 다른 소단원에서 인용되고 있는 모든 문구를 정리한 것이다.

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孟子』 역시 『論語』처럼 짧은 문장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덕목이 어렵지 않게 드러나기 때문에 한문교과서 내 ‘經書’와 ‘諸子書’ 영역에서 그 인용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大學』·『中庸』·『詩經』 등은 『論語』나 『孟子』에 비하여 그 출현빈도가 현격히 낮다. 그 이유는 내용이 심오하며 자기수양 및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녀야 할 자세와 자기성찰에 가까운 哲學的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 학습자가 이해하기 난해하며, 교수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이러한 어려운 문장을 학습자에게 전달·지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諸子書 가운데에서는 『老子』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다. ‘諸子書’ 영역의 인용 글감들을 보면, 각 사상가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원문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四書』에 비해 ‘諸子書’는 문장이 길고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출현빈도가 높지 않다. 그러나 ‘經書’와 ‘諸子書’ 영역에서 다루는 글감과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윤리’ 교과영역에서 많이 다루기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문 교과가 지닌 도구학문의 성격으로서 각 교과와의 연계를 고려한다면 모든 사상가들의 특징적 글감과 성어에 관하여 한번 짚 제시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³⁰⁾

2. 단원의 체제와 구성 방식

본 절에서는 고등학교 漢文 교과서에 ‘經書’와 ‘諸子書’ 단원이 어떤 체제와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서술할 것이다. 즉, 각 교과

30) 동양사상에 대한 인지와 지식 습득은 반드시 한문 원전의 활용과 한자어(어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양사상의 근저와 근원, 그리고 윤리적 덕목들 대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한국윤리와 동양윤리를 배우기 위해서라면 한자어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것이다.

서별로 소단원의 분량(수), 단원이 배치된 위치, 단원 전개 양상 등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서술하고, 각 교과서가 어떻게 학습자 위주로 편성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먼저 각 교과서별로 ‘經書’와 ‘諸子書’에 관한 단원의 분량과 배치는 아래 <표8>과 같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經書’와 ‘諸子書’ 단원은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다. ‘經書’와 ‘諸子書’ 단원의 배치는 ㉠교과서의 경우 마지막 대단원, ㉡교과서는 10단원 중 9단원, ㉢교과서는 11단원 중 7단원, ㉣교과서는 마지막 대단원, ㉤교과서는 9단원 중 8단원에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經書’와 ‘諸子書’ 단원은 거의 모든 교과서의 후미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思想類’의 경우 직역한 해석과 그 속에 담긴 哲學的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장 독해력의 기반이 닦여진 후에 思想的·哲學的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의 교실 수업에서는 思想類 단원이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학교교육과정상 학습 진도가 뒷부분(끝)까지 종결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한 경우에 人性 및 價値觀에 관련된 텍스트들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思想類 문장을 접하지 못해 학습자에게 ‘經書’와 ‘諸子書’ 단원의 학습의 기회가 없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의 적절한 진도 안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 소단원 분량 및 위치

교과서 분류	㉠	㉡	㉢	㉣	㉤
소단원 분량	대단원 11 소단원 34 :소단원3(6면)	대단원 10 소단원 30 :소단원3(6면)	대단원 11 소단원 29 :소단원3(6면)	대단원 10 소단원 35 :소단원3(4면)	대단원 9 소단원 30 :소단원4(6면)
배치	-대단원 11개 중 11번째	-대단원 10개 중 9번째	-대단원 11개 중 7번째	-대단원 10개 중 10번째	-대단원 9개 중 8번째

한편, ‘經書’와 ‘諸子書’ 단원의 분량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교과서는 8.8%, ㉡교과서 10%, ㉢교과서는 10.3%, ㉣교과서8.6%, ㉤교과서13.3%이다. ㉤교과서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교과서가 가장 낮은 편이다. 전체 단원에서 ‘經書’와 ‘諸子書’ 단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안팎으로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인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한문교과가 좀 더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經書’와 ‘諸子書’ 단원에 대한 분량의 증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한다. 양적 팽창은 질적 제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經書’와 ‘諸子書’ 단원이 결코 많지 않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교과서의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완전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할 때, 漢文教育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성과 가치관의 함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각 교과서별로 ‘經書’와 ‘諸子書’ 단원의 단원체제와 구성방식을 분석하였다. 아래 표와 같이 ‘經書’와 ‘諸子書’는 대단원 안에 대부분 소단원 3~4개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단원명은 주제중심으로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단원명은 인물중심이나 주제중심, 또는 주제와 인명을 혼합하여 구성된 교과서도 있었다.

<표 9>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 대단원 및 소단원명

	대단원명	소단원명
㉠	XI.성현의 가르침	32. 군자의 도 孔子 33. 대장부의 기상 孟子 34. 삶에 대한 통찰 諸子
㉡	IX.고전의 가르침	24. 孔子, 孟子 공자알 맹자알 25. 老子, 莊子 무위자연의 삶 26. 孫子, 墨子 사상가의 생각
㉢	VII.관계의 철학	16. 인간과 인간의 관계-孔子 17. 인간과 사회의 관계-孟子 18. 인간과 자연의 관계-老子
㉣	X.성현의 가르침	33. 공자 34. 맹자·순자

		35. 한비자
㉮	VIII. 동양사상의 이해	23. 대학과中庸 24. 논어 25. 맹자 26. 노자와 장자

1) ㉮교과서의 단원체제와 구성

㉮교과서는 한 개의 대단원에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중심으로 소단원명을 정하였다. 단원 구성 내용은 단원표지(대단원명/소단원명/단원안내/단원학습목표/단원미리보기(문제)) ⇒ 소단원(학습목표/들어가기(저자설명)/본문/새로나온한자(본문하단)/지식마당/독해팁/생각마당/어휘마당/활동마당/평가마당)⇒단원자기정리⇒단원평가방식을 취하였다.³¹⁾

대단원에서는 ‘단원미리보기’에서 소단원 제목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한다. 소단원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흥미와 창의적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소단원은 (학습목표/들어가기(저자설명)/본문/새로나온한자(본문하단)/지식마당/독해팁/생각마당/어휘마당/활동마당/평가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들어가기’에 본문 내용과 관련된 孔子, 孟子, 諸子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읽기’ 요소를 가장 잘 반영한 교과서라 할 수 있는데 지식마당의 ‘읽고 풀이하기’에서 문장의 풀이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己欲立而立人(기/욕립이/입인) 己欲達而達人(기/욕달이/달인)’과 같이 독음을 함께 제시하며 바르게 끊어 읽어야 하는 부분에 ‘/’로 표시를 하여 학습자에게 ‘읽기’ 학습을 용이하게 하였다.

각 소단원마다 생각마당의 ‘내용알기’, ‘이해와 감상’, ‘생각더하기’에서는

31) 김언중(2011)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교학사, 232~253면.

공자, 맹자, 諸子思想의 읽을거리를 제공하여 본문내용에 그치지 않고 사상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윤리과목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어휘마당’에서는 공통된 부수의 한자를 제시하여 한자의 음과 뜻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자 마인드맵으로 漢字學習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본문과 관련 없는 많은 양의 漢字學習은 학습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한문학습의 흥미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활동마당’에서는 삽화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한문학습을 딱딱하지 않고 흥미 있게 복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평가마당’에서는 ‘학습목표’에서 제시된 내용이 ‘평가마당’에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특히, 32과 공자, 33과 맹자에서의 평가문제에서는 학습목표에 제시된 내용이 문제에 녹아있지 않고 평가마당 밑의 ‘현문현답’에서 드러나고 있으므로 평가문제가 학습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교과서의 단원체제와 구성

㉠교과서는 한 개의 대단원에 3개의 소단원이 인명과 주제가 함께 드러나도록 소단원명을 제시하고 있다.

단원표지(대단원명/소단원명/단원안내/단원학습목표/5분준비)⇒소단원(들어가기/단원목표/본문/출전해제/새로나온 한자/脈 ● 짚어보다/廣 ● 넓혀보다/習 ● 풀어보다/한문知識人)⇒단원정리⇒단원평가로 구성되어 있다.³²⁾

인명과 주제로 소단원명을 정하고 ‘공자왈 맹자왈’ ‘무위자연의 삶’, ‘사상가의 생각’이라고 부제를 달았으나 소단원명끼리의 공통점을 찾기가 모호하다. 단원표지에서 5분준비 코너를 마련하여 소단원에 들어가기 전 孔子, 孟

32) 송재소(2011)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다락원, 172~193면.

子, 四書, 老莊思想에 대하여 빈칸 채우기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려 하였으나 학습자에게 큰 관심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단원에서는 ‘들어가기’ 부분에서는 공자와 맹자의 사상이란 무엇일까? 라는 물음만 던져놓고 있어 다른 교과서에 비하여 학습자의 집중과 관심을 잡기가 부족하여 보인다. 본문에는 현토가 있어 끊어 읽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脈•짚어보다’의 본문 내용 파악에서는 단지 내용풀이에 치중하여 ㉠ 교과서에 비하여 ‘읽기’학습의 안내가 부족해 보인다.

‘廣•넓혀보다’에서는 부수가 같은 한자들을 제시하여 기초한자 1800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부수가 같은 한자로 단어를 만들어 제시하였으나 본문과 다소 거리가 있는 한자들이어서 학습자에게 지루함을 안겨줄 수 있을 듯하다. ‘읽어보기’ 코너에서 공자의 교육에 대한 읽을거리를 제공하여 학습자에게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학습에 도움을 준 부분이라 생각된다.

‘짚•풀어보다’에서는 소단원의 학습목표가 비교적 평가문제에 투영되어 다루어지고 있어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단원마다 제시한 ‘한문 知識人’이라는 코너는 각 사상가들의 사상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읽을거리를 제공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학교수업 뿐 아니라 평가에서도 모든 교과에서 서술·논술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술·논술형의 자료로 활용하기 좋을 것이다.

‘단원정리’에서는 학습목표에서 제시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나 ‘단원평가’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보다는 문장풀이와 단어 확인 위주의 문제를 많이 제시하고 있어 아쉽다.

3) ㉞교과서의 단원체제와 구성

㉞교과서는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단원 제목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사회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고 하며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인간의 다양한 관계성을 주제중심으로 하여 제목을 정하였다.³³⁾

대단원표지(대단원명/소단원명/이단원에서는/들어가기)⇒소단원(소단원명/학습목표/본문관련설명(본문상단)/출전및인물설명/본문해석의길잡이/깊이보기한자프리즘/온고지신/점검하기)⇒대단원마무리/대단원점검하기/전통과상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단원에서는 학습목표를 ‘한문단문을 끊어 읽을 수 있다.’ 라고 설정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읽기’ 영역을 교과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해석의 길잡이’ 부분에서도 목표를 잘 반영하여 뜻풀이에 그친 것이 아니라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를 들어 현토와 구두법이 사용된 예시를 보이며 바른 ‘읽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장의 이해’에서 본문에 있는 모든 문장을 풀이하지 않아 학습자가 문장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교수자의 노력이 더 요구된다.

‘깊이보기’에서 사상가들의 핵심사상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페이지를 ‘마인드맵’과 ‘현대적 의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㉞교과서에서도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부수가 같은 한자를 제시하고 그 한자가 활용된 한자어를 제시하여 기초한자 1800자를 수용하고자 했다.³⁴⁾ 제시된 단어가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었다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유익할 것이라 여겨진다.

‘온고지신’이라는 코너는 본문 문장이나 관련 내용으로 학습자의 생각을

33) 신표섭(2011)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대학서림, 142~165면.

34) 신표섭(2011)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대학서림, 142~165면.

확장시킬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요즘 교육계에서 입시와 관련하여 논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입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높은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수자가 본문해석에 치우친 수업보다 ‘온고지신’과 같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고를 정리할 수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교수학습계획을 구성한다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더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점검하기’에서는 다른 교과서보다 학습목표에 충실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학습목표와 평가문제가 거리가 있거나 단편적인 단어 뜻을 묻는 문제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㉔교과서는 매우 충실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 대단원 마무리와 대단원점검에서도 핵심정리가 잘 되어 있고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을 싣고 있다.

또한 대단원점검 뒤에 ‘전통과 상식’이라는 코너에 2면을 할애하여 四書三經, 四書五經 등의 설명을 하고 있다. 더 나가 모든 대단원 끝에 ‘전통과 상식’ 코너를 배치하여 학습자가 궁금해 하고 알아야하는 전통과 상식 관련 내용을 싣고 있어 매우 유용한 코너이다.

㉔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지면 여백이 많았다. 모든 지면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여백을 두어 학습자가 가시적으로 학습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여백부분에 학습의 중요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著者和 出典에 대한 소개를 가장 상세하게 하고 있는 교과서이다. 본문의 著者에 대한 사상들을 각 소단원의 ‘깊이보기’에서 한 페이지를 한글로 된 읽기자료로 할애하여 다루고 있어 학습자들에게 윤리교과와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교과서이다.

4) ㉔교과서의 단원체제와 구성

㉔교과서는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명을 소단원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단원표지(대단원명/소단원명/단원길잡이/단원학습목표/생각

열기) ⇒ 소단원(학습목표/본문/새롭게익힐한자(본문좌우)/어구풀이(본문하단)/출전해제(본문하단)/본문연구/문화읽기/확인학습) ⇒ 단원종합정리 ⇒ 단원종합평가로 구성된다.³⁵⁾

단원표지의 ‘생각열기’에서는 ‘四書’, ‘諸子書’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해주고 있어 경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소단원학습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고 있다. ㉞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교과서와 달리 『論語』에서 朱子の 注와 茶山의 注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용재는 ‘經文’과 그에 해당하는 ‘注’를 함께 제시한 것은 그간 한문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시도되지 않았던 점에서 매우 참신한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저자가 朱子와 茶山의 注를 함께 붙인 목적은 (i)경학의 정체성과 (ii)경전의 書誌 정보를 동시에 알려주고자 함이며, 아울러 (iii)우리나라 경학의 특징을 하나라도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8세기 조선에서도 다산 정약용의 『論語古今註』는 당시 淸과 倭의 주석서들을 총망라한 『論語』 주석서였다. ㉞교과서의 著者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論語』의 전통 주석서 하나를 선 보여줌으로써 학습자들에게 경전과 경학의 원형을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경서라는 서적의 書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注를 덧붙인 것이다.³⁶⁾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음을 알려주고 학습자의 사고의 폭을 넓혀보고자 한 점이 특징적이면서도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학습자는 경문만으로도 학습에 부담을 가지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朱子의 注 뿐 만 아니라 茶山의 注까지 제시되어 학습자 뿐 아니라 교수자의 부담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서에서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평가나 다양한 교수방법이 함께 제시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35) 김용재(2011)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더텍스트, 170~185면.

36) 김용재(2013), 「중고교 漢文 교과서에서의 ‘經書’ 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 『漢文古典研究』 제27집, 韓國漢文古典學會.

한편 다른 교과서는 소단원 분량이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㉞교과서는 4페이지로 적게 편성을 하였다. 할애된 분량이 적은 상황이다 보니 한 면에 뾰뾰하게 많은 내용이 들어 있다. 지면에 여백이 많지 않아 학습할 내용이 많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든다. 따라서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부담을 다른 교과서에 비해 많이 느낄 수 있다. 페이지 할애를 많이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다른 교과서들은 ‘한자의 활용’을 부수가 같은 한자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으나 ㉞교과서는 본문에 나오는 한자가 포함된 단어로 한자의 활용을 하고 있어 학습자가 본문의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007차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영역’이다. ㉞교과서에서도 문화읽기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학습자에게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확인학습’과 ‘단원종합정리’와 ‘단원종합평가’에서도 학습목표에 충실하게 문제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5) ㉞교과서의 단원체제와 구성

㉞교과서는 4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5종 교과서 중 가장 소단원 수가 많고, 출전으로 소단원명을 정하였다.³⁷⁾

대단원표지(대단원명/소단원명/들어가기/학습목표)⇒소단원(학습목표/생각열기/본문/어휘설명(오른쪽)/신출한자/출전해제/본문이해학습(본문풀이/한문지식)/활용학습(한자·어휘)/문화산책/점검하기) ⇒ 단원마무리/단원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소단원 ‘생각열기’에서는 학습자에게 본문학습 전에 소단원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읽을거리로 제공하여 학습자가 환기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다. ‘생각열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논술을 써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시논술도 대비할 수 있고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한문수업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㉞교과서는 ‘한문지

37) 김연중(2011)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교학사, 172~201면.

식'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문법 설명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문법을 漢文學習에 필요한 수준으로 설명하고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독해력을 높이고 한문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교과서에 한문 문법적 설명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학습자에게 무작정 외우게 하는 것 보다는 문장풀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관련 자료읽기’가 있어 본문의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단원에서 ‘본문이해학습’에서 ‘본문학습’, ‘한문지식’, ‘한자·어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각 코너마다 문제를 제시하여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가 한자-어휘-한문으로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원마무리’에서는 학습목표를 잘 정리하고 있으나 한문지식에 관련된 문법적 내용을 ‘단원마무리’에서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며 ‘문법지식’은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단원마무리’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고 있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단원 단원평가’에서는 한자, 어휘·성어, 본문내용을 한 면씩 할애하여 학습자에게 漢字學習을 정리 후 어휘를 정리하고 본문내용을 정리하여 문제를 풀 수 있게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의 특징을 잘 반영하려고 노력한 점이 많이 엿보이는 교과서이다.

6) 각 교과서별 단원체제와 구성의 특징

각 교과서들의 구성 체제를 분석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漢文教科 教育課程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었으며,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로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다.

첫째, 모든 교과서가 한 개의 대단원 안에 3, 4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표지-소단원-대단원 정리-대단원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

었다. 또한 소단원 구성에서는 각 교과서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역시 <학습목표-본문-새로 나온 한자-본문풀이-문화읽기자료-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5종의 교과서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읽기’와 ‘문화’ 영역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교과서에서 ‘읽기’ 영역의 학습능력강화를 위해 ‘懸吐’와 ‘句讀’를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읽기’학습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편성하여 놓았다. 특히, ㉠교과서는 독음과 함께 ‘/’로 끊어 읽기 표시를 해놓음으로써 학습자가 읽기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영역의 학습을 위하여 모든 교과서에서 본문내용과 관련된 ‘문화적 요소’를 읽기자료로 제공하여 학습자의 깊이 있는 사고를 이끌어 내고 있다.³⁸⁾

셋째,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기존의 교육과정과 큰 차이점을 찾는다면 <한자, 한자어, 한문>의 내용체계로부터 <한문, 한문지식>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교과서는 이러한 내용체계를 교과서의 구성에도 도입하여 ‘한문지식’을 구성해놓았고, 한문지식에 대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평가부분에서도 이러한 면을 강조하였다.

넷째, 본문풀이의 오른쪽이나 왼쪽 여백은 수업 중 학습자가 핵심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였다. 지면의 여백이 거의 없는 교과서보다는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학습자에게 가시적으로나마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면의 여백이 거의 없는 교과서는 ㉢교과서였다. 다른 교과서들이 6면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교과서는 4면을 할애하고 있어 다른 교과서보다 조밀한 느낌이 든다. 가

38) 예컨대 대학서림 교과서에서는 본문에 출현하는 孟子, 老子의 사상과 연계하여, 이와 관련한 문화적 요소로 孟子와 대화하기, 老子와 대화하기를 문화읽기 자료로 서술하여 학습자에게 孟子와 老子의 다양한 사상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표섭외)

장 지면 여백이 많은 교과서는 ㉔교과서이다. 모든 지면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여백을 두어 학습자가 가시적으로 학습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고 여백이 있는 부분에 중요 내용을 짜임새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놓았다.

다섯째, 학습목표와 그에 따른 내용구성과 평가까지의 연결이 부합되는 교과서가 대부분이었으나, 학습목표에 제시된 내용을 평가에서 다루지 않고 단지, 문장과 한자의 풀이에 치중하는 평가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과서도 더러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 학습자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평가에서 다룰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를 학습하기 위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부수가 같은 한자를 나열하여 한자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과 밀접하지 않은 한자의 활용어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학습 부담만 가중시키게 되어 본문학습과 연계된 학습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교과서도 있다. 따라서 본문과 관련된 어휘학습을 통하여 한자를 익히게 한다면 본문 학습과의 연계성을 찾으면서, 동시에 한자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효율성까지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한문 학습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양보다는 흥미와 교과 내용과 관련이 있는 한자 활용코너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㉔교과서에서는 한자에 대한 학습을 본문 관련 어휘를 통해 하고 있어, 학습자에게 본문학습을 위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일곱째, ‘經書’와 ‘諸子書’를 다루고 있는 만큼, ‘著者’와 ‘出典’에 대한 解題는 매우 중요하다. 著者和 出典을 소개하여 그의 사상과 배경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원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교수자가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자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데, 著者和 出典의 소개여부가 소략한지 상세한지의 여부에 따라 교수방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著者和 出典에 대

한 소개를 가장 상세하게 하고 있는 교과서는 ㉔교과서이다. 著者에 대한 사상들을 각 소단원의 ‘깊이보기’에서 한 페이지를 국문 자료로 할애하여 다루고 있다. 그에 반해 ㉒와 ㉓교과서는 著者와 出典을 소략하게 다루고 있다. ‘經書’와 ‘諸子書’ 단원의 수업구성에 있어 교사의 노력이 많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덧붙여서 出典을 표기 시, 書名만 기입한 것과 書名과 아울러 篇名을 기입한 교과서를 살펴보면 ㉑, ㉒, ㉓교과서는 書名과 篇名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㉒, ㉓교과서는 書名만을 제시하고 있다. 『論語』라는 서명만을 표기한 경우 교사는 『論語』에 대한 설명만 하겠지만, 書名과 篇名을 같이 표기한 경우 「學而」편에 대한 설명을 함께하여 학습자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經書’와 ‘諸子書’는 자칫 학습자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 내용이 지나치게 도덕적이어서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가시적으로 친근감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삽화나 사진의 수록은 의미 있는 부수자료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5종 교과서의 ‘經書’와 ‘諸子書’를 다루는 각 단원에서의 ‘삽화’와 ‘사진’의 수록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교과서에 전반적으로 삽화나 사진이 실려 있지 않았다. ㉑교과서의 경우는 ‘활동마당’에서 4컷 만화와 삽화를 넣은 문제로 학습자들이 만화와 삽화를 보고 생각하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 점이 다른 교과서에 비하여 특징이다. ㉒교과서의 경우 특별하게 많은 삽화나 사진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본문 페이지 전체에 밝고 은은한 톤의 배경그림을 넣어 학습자에게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삽화나 사진을 많이 배치하지 않았고 또한 ㉑, ㉒교과서 외의 교과서에서의 삽화나 사진은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보이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흥미나 친근감을 유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중복 문장과 난이도

1) 중복 문장

아래의 표는 ‘經書’와 ‘諸子書’ 문장이 중복 인용된 문장들을 조사하여 발췌한 것이다.

<표 10>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 문장의 중복 문구

	경 문	회수
논어	知之者는 不如好之者요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라.	2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위령공』	2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학이』	2
	夫仁者는 己欲立而立人하며 己欲達而達人이니라.『옹야』	2
노자	上善若水라. 水善利萬物而不爭하고 處衆人之所惡하니 故幾於道라.	2
장자	不知周之夢爲胡蝶與아?胡蝶之夢爲周與아?周爲胡蝶이 則必有分矣로되 此之謂物化라.	2
묵자	若使天下兼相愛하면 國與國이 不相攻하고 家與家가 不相亂하여 盜賊無有하고 君臣父子 皆能孝慈리니 若此면則天下治리라.	2

5종의 교과서에서 중복되어 출현되는 문장은 『論語』 4개 문장, 『老子』, 『莊子』, 『墨子』는 각 한개 문장씩 중복되어 출현되고 있다.

위의 문장들이 중복되어 출현되는 이유는 첫째, 『論語』의 경우 해석의 용이성 때문일 것이다. 학습하기 어렵지 않은 한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독해가 쉽고 문장의 함축적 의미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³⁹⁾는 『論語』의 첫 장인 「學而」에서 가장 앞부분 있는 문장이며 가장 많이 노출된 문장이므로 다른 문장보다 친근감을 줄 수 있다. 『老子』, 『莊子』, 『墨子』의 문장들도 사상가들의 가장 대표적인 문장들로 어떤 문장보

39) 『論語』, 「學而」: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동지가 먼 지방으로부터 찾아 온다면 즐겁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 하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다 대중에게 많이 노출되어진 문장들이다. 셋째, 論語의 문장 뿐 아니라 老子, 墨子의 문장들 모두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른 인성함양이라는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인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복 문장들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다른 교과서라 하더라도 같은 문장이 쓰였다면 현토가 같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현토를 찾아낼 수 있었다.

김용재는 ‘읽기’ 학습이 漢文教育에 있어 매우 중요한 教育方法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문장의 독해는 ‘읽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며 특히, 表意文字인 한문은 ‘읽기’ 학습과정에서 이미 독해의 절반이 시작된 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한문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讀者(학습자)는 낱글자 안에 숨어 있는 漢字의 의미를 어느 정도 감지해내고 끊어 읽기 과정에서 문자의 大義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⁴⁰⁾

5종의 교과서에서는 모두 懸吐를 하고 있다. 教育課程에는 懸吐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懸吐의 원리를 지나치게 따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교과서에서 懸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懸吐란 무엇이며 어떻게 懸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는 5종 교과서에서 중복인용된 문장이지만 懸吐를 다르게 한 것이다. 懸吐를 할 경우에 같은 문장이라면 懸吐 또한 같아야 할 것이다. 학습자들은 종종 문제집에 나와 있는 현토와 교과서의 懸吐가 다름을 물어보기도 한다. 懸吐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데 같은 문장임에도 다르게 懸吐한다면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再考해보아야 할 것이다. 가급적 교과서 본문에 들어가는 문장들의 懸吐는 통일성

40) 김용재(2013), 「중고교 漢文 교과서에서의 ‘經書’ 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 『漢文古典研究』 제27집, 韓國漢文古典學會.

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⁴¹⁾

<표 11> 교과서內 중복인용 문장 중 懸吐가 다르게 표기된 문장

논어	知之者는 不如好之者요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라.	㉔:II-4과
	知之者는 不如好之者요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니라.	㉔:IX-24과
	夫仁者는 己欲立而立人하며 己欲達而達人이니라.	㉔:XI-32과
	己欲立而立人하고 己欲達而達人하라.	㉔:VII-16과
노자	上善若水라. 水善利萬物而不爭하고 處衆人之所惡하니 故幾於道라.	㉔:XI-34과
	上善若水하니 水善利萬物而不爭하며 處衆人之所惡라. 故幾於道니라.	㉔:IV-25과
장자	不知周之夢爲胡蝶與아? 胡蝶之夢爲周與아? 周與胡蝶이 則必有分矣로되 此之謂物化라.	㉔:XI-34과
	不知케라 周之夢爲胡蝶與아? 胡蝶之夢爲周與아? 周與胡蝶은 則必有分矣니 此之謂物化니라.	㉔:VIII-26
묵자	若使天下兼相愛하면 國與國이 不相攻하고 家與家가 不相亂하여 盜賊無有하고 君臣父子가 皆能孝慈리니 若此면則天下治리라.	㉔:XI-34과
	若使天下로 兼相愛하면 國與國이 不相攻하고 家與家가 不相亂하며 盜賊이 無有하고 君臣父子가 皆能孝慈라. 若此則天下治리니	㉔:IV-26과

2) 난이도

이돈석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四書經文이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도 똑같이 수록되어 있고 단지 經文의 길이가 길고 짧은 차이만 있을 뿐이며 결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四書經文 난이도는 經文의 길이에 있다⁴²⁾ 라고 하였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한문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매 학년 漢文教科를 배우며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진급하는 것이 아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재량활동의 연간 수업 시간 수는 102시간이며, 시간활용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외국어, 기타의 선택과목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41) 김용재(2013), 「중·고교 한문 교과서에서의 ‘經書’ 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 『한문고전연구』 제27집, 韓國漢文古典學會, 289면 참조.

42) 이돈석(2013), 「漢文 教科 經書 教育에 對한 一考 - 2007 中學校 教育課程 1學年 所載 經文을 中心으로」, 『漢字漢文教育』 제30집, 한자한문교육학회, 461면.

국민공통 기본 교과목의 심화·보충 학습 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3시간이며, 각 학교별 각 학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은 1-3개 교과목이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가운데 중학교 한문을 전혀 배우지 않은 경우, 1개 학년만 배운 경우, 2개 학년을 배운 경우, 3개 학년을 모두 배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⁴³⁾ 1개 학년만 배우는 경우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고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면 고등학교 2학년에서 다시 한문 I 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즉, 4년 만에 다시 한문학습을 하게 되는, 더 나가서 중학교에서 한문 교과 자체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있게 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라고 하여 중학교 교육과정과의 위계를 생각하여 본문의 분량이나 내용 등이 너무 어려워지고 분량이 많아지면 학습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한문학습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키고 어렵고 기피하는 과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經書’와 ‘諸子書’ 단원의 난이도에 대한 교과서 執筆者의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자는 난이도의 기준을 본문의 분량,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외의 한자가 쓰인 여부, 내용 수준과 해석의 용의성의 3가지로 나누어 문장의 난이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각 소단원별 본문분량과 한문교육용기초한자 외 한자의 출현 개수이다.

<표 12> 소단원별 ‘經書’와 ‘諸子書’ 본문분량 및 난이도

	출전	본문길이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외 한자
㉔	논어	7줄(110자)	
	맹자	8줄(124자)	餒
	도덕경, 장자, 순자, 묵자	8줄(140자)	
㉕	논어, 맹자	11줄(131자)	
	도덕경, 장자	11줄(111자)	淵, 羞
	순자, 묵자	11줄(117자)	

43)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교육과정해설서13」, 교육과학기술부, 68~69면.

㉔	논어	8줄(84자)	慍
	맹자	7줄(106자)	壁, 侈, 俯
	노자	9줄(85자)	
㉕	논어	16줄(140자)	肄, 慍, 蘊
	맹자, 순자	10줄(136자)	搏, 頽
	한비자	11줄(144자)	寵, 駕, 刑, 閒, 啗, 弛
㉖	대학, 중용	8줄(120자)	后, 與, 睹
	논어	8줄(102자)	淵, 馮,
	맹자	11줄(152자)	與, 弑, 鑿
	노자, 장자	7줄(107자)	樸, 栩, 喻, 俄, 蓮

위의 표와 같이 전반적으로 본문의 분량이 많은 편이다. 『論語』의 경우 짧은 문장이므로 나누어 학습할 수 있으나 다른 경문의 경우는 본문 문장의 분량이 많으면 1차시에 본문학습을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한 경우에 문장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문장의 흐름을 이어가며 수업을 하여도 학습자들은 어려워 할 수 있는 단원이 經書와 諸子書 단원인데 문장의 흐름을 끊고 다음 차시에서 이어 본문학습을 한다면 학습자의 의욕이 많이 반감될 듯하다.

㉕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韓非子』의 문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昔者에 彌子瑕有寵於衛君이라. 衛國之法에 竊駕君車者는 罪刑이러라. 彌子瑕母病이어늘 人間往夜告彌子하니 彌子矯駕君車以出한데 君이 聞而賢之曰 “孝哉로다. 爲母之故로 忘其刑罪로다.” 異日에 與君遊於果園한데 食桃而甘하여 不盡하고 以其半啗君하니 君曰 “愛我哉로다. 忘其口味하고 以啗寡人이라.” 及彌子色衰愛弛할새 得罪於君하니 君曰 “是는 固嘗矯駕吾車하고 又嘗啗我以餘桃니라” 故로 彌子之行은 未變於初也이나 而以前之所以見賢하고 而後獲罪者는 愛憎之變也일새니라.

위 韓非子의 문장의 경우 하나의 소단원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 문장의 고등한문이지만 분량이 길어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며 한문교육용 기초한자가 다른 교과서의 단원보다 많이 제시되어 학습자에게 어려운 문장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해석의 있어서는 이야기 식으로 내용을 풀어가고 있는 문장이라 학습자에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수 있으나 이

미 양적으로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 교과서의 『孟子』의 「梁惠王」편은 다음 글을 소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孟子見梁惠王하신대 王曰, “叟不遠千里而來하시니 亦將有以利吾國乎잇가?”
孟子對曰 “王은何必曰利잇고? 亦有仁義而已矣니이다. 王曰, 何以利吾國고?”
하시면 大夫曰, ‘何以利吾家오?’ 하며, 士庶人曰, ‘何以利吾身고?’ 하여 上下
交征利면 而國危矣리이다. 萬乘之國에 弑其君者는 必千乘之家이오 千乘之國
에 弑其君者는 必百乘之家니, 萬取千焉하며, 千取百焉이不爲不多矣언마는苟
爲後義而先利면 不奪하여는 不壓이니이다. 未有仁而遺其親者也며 未有義而後
其君者也니이다. 王은 亦曰仁義而已矣시니 何必曰利잇고

『孟子』의 「梁惠王」편의 글은 孟子的 글 중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글이지만 전체의 문장을 다 학습하기에는 학습자의 부담이 많다. 국문으로 제시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을 원문으로 제시하는 방법도 학습자에게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한문학습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키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經書’와 ‘諸子書’ 내용은 겉으로 가지고 있는 뜻 이외에 내면의 깊은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 문장들이다. 그러므로 ‘經書’와 ‘諸子書’ 단원의 글감들은 학습자가 이해하고 해석하기 쉬운 내용수준의 글감으로 학습자에게 지혜와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문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4. 한문지식과 문법내용의 소화

이번 절에서는 ‘經書’와 ‘諸子書’ 영역에서 ‘한문지식’의 내용이 어떻게 담보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문법표현은 허사, 문장유형, 수사법, 품사 등의 설명이 각 교과서별로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으며 학습자들에게 어떤 수준까지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1) 허사

‘허사(虛辭)’란 어휘적 의미가 없거나 그다지 실재적이지 않고, 實辭(실사)에 붙어서 단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단어를 말한다. 주된 기능이 문장 안에서의 문법적인 기능이므로 기본적으로 문장에서의 쓰임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 허사에 속하는 품사는 介辭(개사), 接續詞(접속사), 語助辭(어조사)로 나눌 수 있다.⁴⁴⁾ 교육과정해설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허사의 품사는 아래표와 같다.

<표 13>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허사

개사	於, 于, 乎, 以, 自, 由, 從
접속사	以, 而, 且, 與, 則
어조사	也, 矣, 耳, 已, 而已, 乎, 哉, 之, 者, 所
감탄사	嗚呼, 惡, 諾

『漢文 I』교과서의 ‘經書’와 ‘諸子書’ 단원에 다루어지고 있는 虛辭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한문 I』교과서에 출현하는 허사

	허사	허사가 쓰인 문장
㉠	而 與 以 與 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而 : ⇒舍生而取義者也, 以直養而無害 - 與 : ~와 ⇒其爲氣也配義與道 - 以 : ~하여(=以) ⇒ 無求生以害仁 - 與: ~인가? ⇒ 周之夢爲胡蝶與아? 胡蝶之夢爲周與아? - 則 : ~하면 ⇒ 人生而有欲欲而不得則不能無求
㉡	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與는 단어와 단어를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접속사 若使天下 兼相愛 國與國 不相攻 家與家 不相亂 盜賊 無有 君臣父子 皆能孝慈
㉢	自 則 而 之 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로부터 : 自遠方來 - 則은 ‘~면 곧’의 의미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 而是 ‘그리고,그래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及陷於罪然後 從而刑之 是罔民也 - 之 : 첫 번째 之는 ‘가다’, 두 번째 之는 ‘이’, 세 번째 之는 ‘그것(그)’의 의미

44)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교육과정해설서13」, 교육과학기술부, 52면.

		驅而之善 故 民之從之也輕 - 已 : ‘已는 ~뿐이다’의 의미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㉒	不~乎 豈~哉 於 以 哉	- 不~乎 : ‘~하지 아니한가?’로 풀이되며 반어의 어기를 나타낸다. 學而時習之不亦說乎 - 豈~哉 : 어찌 ~이겠는가?, 반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조사(豈, 那, 奈, 奚) 是豈水之性哉 - 於: ‘에게’, ‘에서’ 彌子瑕有寵於衛君 與君遊於果園 - 以: ~하고서 彌子矯駕君車以出 - 哉: 哉는 주로 문장의 끝에 쓰여 감탄의 어기를 나타낸다. 孝哉 爲母之故 忘其刑罪 愛我哉 忘其口味 以啗寡人
㉓	於 矣 之 乎 則 夫 誰 而已矣	- 於 : ~에(처소), 개사 在止於至善 - 矣 : ~이다, 어조사 物有本末 事有始終 知所先後 則近道矣 - A之謂B: A를 일러 B라 한다. ‘之’는 A가 서술어 謂의 빈어임을 나타내는 어조사.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 乎 : ~에 대해서(대상), 개사 是故 君子 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 乎 : ~보다(비교), 개사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 愼其獨也 - 則 : ~하면, 접속사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 與 : ~와 접속사, 夫: 감탄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조사 惟我與爾 有是夫 - 而已矣 : ~일 뿐이다. 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위의 정리된 표는 본문풀이에서 虛辭에 대하여 설명된 것만을 정리한 것이다. 각 교과서별로 ㉒에서는 5개, ㉓에서는 1개, ㉔에서는 6개, ㉕에서는 5개, ㉖에서는 8개의 虛辭를 설명하고 있다. ㉔교과서의 경우 1개의 虛辭만을 설명하고 있다. ‘經書’와 ‘諸子書’ 단원이 단원의 뒷부분에 배치되어 앞부분에서 설명된 虛辭라 할지라도 학습자에게 문장을 예로 들어 다시 설명해주는 것이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바른 독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아쉬움이 있다.

㉔ 교과서의 경우 대단원Ⅲ의 대단원 정리에서 ‘虛辭’라는 용어가 언급되어 있으나 허사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드러나 있지 않다. 물론 교사가 수업시간 虛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수 있으나 교과서에 허사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고등학교 교수학습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㉕ 교과서의 경우 대단원Ⅱ에서 허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虛辭의 종류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 문법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虛辭에 대한 설명과 종류정도는 교과서에서 언급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㉖ 교과서에서는 虛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없이 단원마다 필요에 의해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단원Ⅴ에서 개사에 대한 설명을 먼저하고 있다. 虛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㉗ 교과서는 대단원Ⅳ에서 語助辭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나 구체적인 용어설명이나 虛辭에 대한 설명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㉘ 교과서의 경우 대단원Ⅱ부터 介詞, 接續詞란 용어가 등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 虛辭란 용어는 대단원 Ⅲ에 등장하고 용어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虛辭란 용어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 교과서는 ㉔, ㉕ 교과서이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虛辭란 용어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 중학교과정이 아니고 고등학교과정이라도 용어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강조될 필요는 없지만 교과서에 언급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이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㉕ 교과서는 교과서의 구성에 ‘한문지식’ 지식 코너가 있어 다른 교과서보다 虛辭의 쓰임에 대한 설명이 많아 학습자가 어려워 할 수 있으나 문법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문장유형(문장성분 및 문장구조)

<표 15> 『한문 I』교과서 출현 문장성분 및 문장구조

문장성분 및 문장구조	
㉔	- 惡乎: 어디에서(=何所) ⇒ 惡乎成名(문장성분의 도치) - 不可: ~할 수 없다. ⇒ 二者不可得兼
㉕	- 不患人之不知 患不知人也 술빈구조의 기본 어순은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빈어가 뒤에 놓인다. 그러나 '不知'처럼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인칭 대명사가 빈어로 쓰일 때에는 빈어(己)가 서술어(知)앞에 온다. - 人人 親其親 長其長 而天下平 親其親 長其長 (동사) (명사)(동사) (명사)
㉖	- 躬自厚而薄責於人則遠怨矣은 원래 躬自厚責而薄責於人則遠怨矣에서 責이 생략된 구조. 문장성분의 생략: 중복을 피하고 표현을 간단하게 하기위해 생략.
㉗	없음
㉘	- 문장성분의 도치: 술빈구조의 기본 어순은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빈어가 뒤에 놓이지만, 특정한 조건에서는 빈어가 서술어 앞에 놓이기도 한다. :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의문대명사가 빈어로 쓰일 때 王子孰謂? 謂文王也 - 본문에 없고 본문이해학습에 있는 문장 :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지시 대명사나 인칭대명사가 빈어로 쓰일 때 吾愛之 不吾叛也 - 문장 성분의 생략: 한문은 문장 안에서 번잡하거나 중복을 피하고 표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天下有道則見 (天下)無道則隱: 생략된 문장 앞에 '天下'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뒤 문장에서 주어를 생략한 것이다. - 何以: 무엇으로써, 무슨방법으로써: '以何'의 도치.

‘문장의 구조’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의 일정한 결합방식을 말한다.⁴⁵⁾

문장의 기본구조에 대한 설명은 ‘經書’와 ‘諸子書’ 단원이 대체적으로 뒤에 위치해 있어 앞 단원 단어 및 문장학습에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어 ‘經書’와 ‘諸子書’단원에서는 ㉔교과서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㉔교과서의 경우 대단원 I 한문의 기초에서 ㉗교과서의 경우도 대단원 I 한문의 첫걸음에서, ㉘교과서도 대단원 I의 ‘한문을 배우며’에서 한문문장구

45)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교육과정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58면.

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첫 단원에서 문장의 구조학습을 하면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독해학습을 하는데 있어 우리말 어순과의 차이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므로 어렵더라도 효율적인 교수 학습을 위하여 교과서 앞부분에 배치하여 쉬운 문장을 예시로 들어 설명한다면 학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법

한문에서의 수사법은 문장의 표현과 의사전달의 효과에 착안하여 문장의 감상을 돕는 것으로 음운효과를 고려한 압운과 평측, 문체, 그리고 표현 기법 등을 들 수 있다. 한문 작품 안에는 한문문법의 각도로 바라볼 때 불완전하고 어색한 표현이라 생각되는 문장이 한문수사법의 시각으로 감상할 때는 고도의 예술적 표현인 경우가 많다.⁴⁶⁾ 라고 교육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經書’와 ‘諸子書’ 단원에서 설명되어진 수사법은 다음과 같다.

<표 16> 『한문 I』교과서 출현 수사법

	종류	문 장
㉠		없음
㉡	연쇄법 중첩법	-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연쇄법) 연쇄는 앞의 어휘나 어구 또는 문장을 뒤에서 다시 받아 사용하는 수사법으로 내용과 형식에서 서로 같거나 비슷한 표현이 앞과 뒤에서 맞물리게 한다. -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중첩) 중첩은 같은 글자나 구를 두 세번 같은 자리에 쓰는 수사법이다.
㉢	연쇄법	- 연쇄법 : 앞의 어휘를 뒤에서 다시 받아 사용하는 연쇄의 수사법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	비유법	- 비유법 : 비유법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두 사물 사이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수사이다. 學之不已 如鳥數飛也
㉤	비교법	- 비교법 : 두 종의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사물, 혹은 동일한 사물

46)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교육과정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63면.

	연쇄법	<p>의 두 가지 같지 않은 방면을 가지고 대조하는 것으로 어의가 선명해지는 표현효과를 얻는 방법이다.</p> <p>莫見乎隱 莫顯乎微(최상급비교)</p> <p>- 연쇄법 : 앞의 어휘나 어구 또는 문장을 뒤에서 다시 받아 사용하는 방법이다.</p> <p>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治禮之污隆 係乎人材之盛衰 人材之盛衰 關乎學校之興廢</p>
--	-----	---

㉠교과서의 ‘經書’와 ‘諸子書’ 단원에서는 수사법에 대한 설명이 없다. 34단원에서 도덕경의 ‘上善若水’라는 문장에서 비교법이 쓰였으며 학습목표에서 ‘비교법을 안다.’ 라고 하고 있지만 ‘비교법’에 대한 설명은 문장설명이나 평가에서 드러나 있지 않다. 단지 대단원 정리에서 비교법을 설명하고 있다. 학습목표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소단원에서 수사법의 설명과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교과서는 연쇄법과 중첩법 ㉢ 교과서는 연쇄법에 대하여 ㉣교과서는 비유법, ㉤교과서는 비교법과 연쇄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 수사법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어 문장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독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조하면 학습자가 학습 부담을 느끼며 흥미를 잃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 품사의 활용

<표 17> 『한문 I』 교과서 상의 품사의 활용

품사의 활용	
㉤	<p>- 대명사 : 사람이나 사물, 장소 및 상태나 동작 등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일반적인 대명사 외에 한문에는 특수한 대명사의 쓰임이 있다.</p> <p>- 명사의 동사적 활용 後義而先利(의리를 뒤로하고 이익을 앞세우다) 未有義而後其君者也(의로우면서도 그 군주를 뒤로 한 사람은 아직 없었다.)</p> <p>- 수사의 부사적 활용 :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는 수사가 동사 앞에 올 때</p>

<p>이다. 萬, 千이 부사어로 쓰임. 萬取千焉(만에서 천을 취하다) 千取百焉(천에서 백을 취하다) - 형용사의 활용 ①형용사의 동사적 활용 : 한문에서 형용사는 뒤에 명사나 대명사 등의 빈어가 올 때 ‘~라고 생각하다(여기다. 삼다)’라는 뜻을 가진다. 不遠千里 ②형용사의 명사적 활용 何必曰利? ⇒ ①의 ‘遠’은 본디 ‘멀다’란 뜻의 형용사이나 뒤에 대명사 ‘千里’가 와서 ‘멀다고 여기다’는 뜻을 가진다. ②의 ‘利’는 ‘이롭다’란 뜻의 형용사이나, 서술어 ‘曰’의 빈어로서 ‘이로움’이란 명사로 쓰였다.</p>

품사의 활용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㉞교과서이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품사의 활용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다. 교육과정에서는 품사를 학습할 때에는 문장의 풀이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문법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⁴⁷⁾라고 하고 있다. ㉞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하여 한문지식 즉, 문법적 요소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 각 소단원마다 ‘한문지식’이라는 코너가 있어 본문의 문법적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문제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용이하게 되어 있다. 다만, 品詞의 활용까지는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어 교과서에 실어서 학습자에게 학습 부담을 주기 보다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47)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교육과정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47면.

IV. ‘經書’와 ‘諸子書’ 부문에서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

본 IV장에서는 각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經書’와 ‘諸子書’ 영역에서의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선별하여 분석하고, 이에 발전적 제언을 첨언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經書’와 ‘諸子書’ 단원에서 가장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독해’, ‘논리논술’, ‘읽기자료’, ‘자기주도 학습평가’의 4가지 분야로 나누고, 이를 ‘經書’와 ‘諸子書’를 다루고 있는 단원에 적용하여 볼 때 각각의 분야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보기로 한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서술되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자가 위 네 가지의 교수학습방법을 기준 항목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한문학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독해’ 학습에 있기 때문이다. 한문 원문에 대한 독해가 바르게 되어야 문장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교육과정에 나타난 한문 교과와 본질적인 교육목표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논리논술을 통한 교수학습방법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經書’와 ‘諸子書’의 한문 원문이 대체로 가치관과 인성과 관련된 내용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儒家經書와 諸子百家 원문은 그저 독해학습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하여 자신을 설득하고 타인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학습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진입하였는데, 이른바 ‘문화’영역의 삽입과 강조이다. 이는 비단 한문 교과서에서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영역에서도 공히 다뤄지는 영역으로 부각하였다. 교과서 내에서 ‘문화읽기’ 부분의 자료를 走馬看山 격으로 훑어 지나가는 것

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우리 문화의 자존감과 함께, 아울러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에게 우열의 차이보다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서적 함양이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넷째, 교과서 안에서 제시된 학습목표란 학습자가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목표점과 같다. 그럼 이 목표점이 교과서의 평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일면 의미 있는 작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먼저, 2007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서술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18>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서술된 교수학습 방법⁴⁸⁾

- (1)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한다.
 - (가) 한문영역의 ‘읽기’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읽고 풀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나) 한문영역의 ‘이해’는 강의법, 토의 학습법, 역할놀이 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다) 한문영역의 ‘문화’는 토론학습, 비교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및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라) 한문지식영역의 ‘어휘’는 조어분석법, 언어 활용법, 비교 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지도한다.
 - (바) 한문 지식 영역의 ‘문장’은 다양한 수업방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지도한다.
- (2)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강의, 토론, 현장학습, 협동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지도한다.
- (3)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여, 교사와 학습자가 양방향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48)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교육과정해설서13」, 교육과학기술부, 69~70면.

이러한 교육과정상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점에 비추어 교과서에서 교수학습방법이 잘 구현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1. ‘독해’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독해는 한문학습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해는 직역과 의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역이 바르게 되어야 문장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 윤조현은 한문독해의 오역 원인을 6가지로 나누었다. ① 懸吐와 끊어 읽기의 미숙, ② 多義語에 대한 혼란 즉, 대표적인 뜻만을 알기 때문으로, ③ 品詞에 대한 이해부족 ④ 虛辭의 쓰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 ⑤ 문장구조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통하지 않아 어색한 독해를 하게 되고, ⑥ 수사법을 확인하지 못하고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을 파악하는 얽매어서 오역이 발생한다고 하였다.⁴⁹⁾ 여기에 또한 특수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독해학습의 중요한 요소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윤조현의 한문독해의 오역의 원인에 비추어 5종의 교과서에서 한문독해학습을 통한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바른 독해학습을 위하여 어떠한 교수방법이 필요한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먼저 5종교과서의 ‘經書’와 ‘諸子書’ 단원에서 바른 독해학습을 위하여 교과서별로 학습자에게 문장구조를 바르고 명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문장들 찾아보고 학습자에게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 문장들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문장은 하나의 완결된 생각을 나타내는 최소 언어단위이다. 문장은 몇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이 구성 요소를 ‘문장의 성분’이라고 한다. 문장의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빈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등이

49) 윤조현(2010), 「한문 학습자의 오역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있다. 문장의 구조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의 일정한 결합방식을 말한다. 문장의 구조를 주성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주술구조, 주술빈구조, 주술보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⁵⁰⁾ 문장의 구조를 바르게 알면 독해학습을 있어 학습자에게 바른 직역을 통하여 이면에 있는 깊은 의미까지를 이해할 수 있다. 經書와 諸子書 단원의 문장들은 철학적인 내용이 많아 학습자가 어렵게 여기는 단원이다. 내용의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문장의 구조를 바르게 알고 독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술관계의 문장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문장은 ㉞교과서의 ‘人之性惡 其善者僞也’이다. 수식어가 덧붙여있으나 쉬운 한자로 구성되어 교수자가 설명하기도 쉽고 학습자가 이해하기도 적합한 문장이다. 人之性(주어)+惡(술어) 其善者(주어)+僞也(술어)의 구조로 ‘性’을 꾸미는 수식어인 ‘人’의 관계를 설명하며 주술관계뿐만 아니라 수식어가 첨가된 확장구조의 문장을 설명할 수 있다. ㉟교과서의 성어학습의 ‘山紫水明’ 또한 학습자에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문장이다. 山(주어)+紫(술어)水(주어)+明(술어)의 주술구조가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학습자에게 문장구조를 이해하기에 적합하다.

주술보관계의 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는 문장들을 살펴 보면 ㉡교과서의 ‘上善若水’를 들 수 있다. 上善(주어)+若(술어)+水(보어)의 구조로 이루어져 문장을 구성하는 한자 자체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주술보구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의 經書와 諸子書 단원에서의 문장은 짧은 문장이 아니라 長文의 글감이 실리기 때문에 학습자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 長文의 글감에서 문장의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을 찾아 예문으로 문장구조학습을 하는 것이 바른 독해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0)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교육과정해설서13」, 교육과학기술부, 57~58면

주술빈구조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문장으로는 ㉠교과서에서 ‘知彼知己百戰不殆’를 들 수 있다. 평소 학습자들이 들어본 문장으로 ‘知(술어)+彼(빈어)+知(술어)+己(빈어)’로 빈어의 개념이 학습자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나 술빈구조에서 빈어는 술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며 이해시킬 수 있는 문장이다. ㉡교과서에서의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의 경우도 ‘人(주어)+法(술어)+地(빈어) 地(주어)+法(술어)+天(빈어) 天(주어)+法(술어)+道(빈어) 道(주어)+法(술어)+自然(빈어)’의 구조로 주술빈구조를 설명하기에 쉬운 한자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의 어휘를 뒤에서 다시 받아 사용하는 연쇄법이 쓰인 문장으로 수사법과 주술빈 문장구조설명에 적합하다. ㉢교과서의 ‘孟子見梁惠王’ 또한 ‘孟子(주어)+見(술어)+梁惠王(빈어)’의 구조로 주술빈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子行三軍，則誰與?’의 경우 술빈구조의 기본 어순은 서술어가 빈어 앞에 놓이지만 위 문장의 ‘誰與’는 술어와 빈어의 순서가 바뀌었다. 이 경우 학습자에게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의문대명사가 빈어로 쓰일 때 빈어가 서술어 앞에 놓인다는 것을 학습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학습자는 이미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장구조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문장은 교과서 執筆 시에 지양하여 선정해야 할 것이며 지나치게 문장구조만 강조하다 보면 한문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흥미를 잃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둘째, 문장의 懸吐와 끊어 읽기가 바르게 되는 것이 바른 독해학습의 지름길이다. 단어나 구절 하나하나의 의미에 충실하게 독해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끊어 읽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5종 교과서에서 한자의 ‘읽기’가 바르게 끊어 읽기가 되었는가를 보아야 하는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읽기’학습의 강조로 5종 교과서 모두 懸吐하여 학습자가 바르게 끊어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학습자가 문장 독해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

도록 안내하고 있다.

셋째, 한자의 음을 바르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단어나 문장에 사용된 한자의 올바른 뜻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다의어인 한자가 문장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알아야 한자의 음도 명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5종의 교과서에서는 문장의 독해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한자의 여러 가지 뜻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 ㉡교과서에서는 『論語』의 「學而篇」의 ‘學而時習之不亦說乎’와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를 제시하고 있는데 ‘說’과 ‘樂’의 문장에서의 뜻이 문장에서 어떻게 풀이 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교과서에서 ‘說’과 ‘樂’의 여러 가지 뜻을 밝히고 문장에서 쓰인 뜻과 음을 제시하고 있어 독해학습과 읽기학습에 도움이 되고 있다.

넷째, 品詞, 虛辭의 부족한 이해가 정확한 독해를 어렵게 하는 원인인데 5종의 교과서에서는 본문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品詞, 虛辭의 쓰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3장의 4절의 한문지식과 문법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5종의 교과서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독해학습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에서는 본문학습을 위한 品詞, 虛辭의 문법적 요소의 설명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 학습자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문장의 독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바른 독해학습에 필요 요소인 문장의 구조학습, 懸吐를 통한 바른 끊어 읽기, 문장에서의 한자의 바른 음과 뜻, 品詞와 虛辭의 안내가 전반적으로 모든 교과서에서 잘 안내되고 있다.

그렇다면 독해학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經書와 諸子書 단원은 교과서의 후반부에 위치한다. 그 이유는 내용이 철학적이고 문장이 비교적 길며 이면에 깊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 앞단원에서 成語學習이나 짧은 短文의 글감을 통하여 충분한 문장구조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經書’와 ‘諸子書’ 단원의 글감도 너무 철학적인 것을 신기보다는 한문교과가 선택과목이라는 교과목의 특수성을 생각하여 문장해석이 용이하면서도 학습자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글감을 선별해야 한다.

셋째, 독해학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독해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시수의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교수자가 설명하고 학습자는 한자의 음과 뜻, 문장의 해석을 필기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많은 양을 학습하는 것보다 학습자가 한문 독해학습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직접 학습자가 字典을 통하여 漢字를 찾고 해석해보도록 하는 것도 바른 독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논리논술’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정보들이 넘쳐나고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상에서의 온갖 비방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점점 개인주의 성향과 인간성이 파괴되는 시점에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人性教育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인성적 텍스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한문교과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잘 부합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문교과의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일순은 학교현장에서 思想類 산문에 대한 수업으로 토론과 논술을 활용한 한문수업을 제시하고 있다.⁵¹⁾ 교과서 思想類 단원은 학습자에게 인성적 측면의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텍스트가 많다. 그러므로 가치관과 인성함양에 관한 텍스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문교과서를 통한 논리논술은 학습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어 수동적인 수업에서

51) 최일순(2011) 「토론과 논술을 활용한 한문과 교육방법 연구 : 孟子출전 본문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종교과서에서의 經書와 諸子書 단원의 많은 가치관과 인성함양에 대한 텍스트 중에 孝와 仁, 殺身成仁에 관련된 논리논술학습을 하기에 적절한 텍스트를 찾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효에 관한 인성요소는 ㉠교과서의 ‘人人親其親 長其長而天下平’⁵²⁾, ‘若使天下 兼相愛 國與國 不相攻 不相亂 盜賊無 君臣父子 皆能孝慈’⁵³⁾ ㉡교과서는 문화읽기의 ‘도덕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바른 효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 지문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의 ‘생각열기’에서 ‘효에 대한 가르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효의 가르침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자식이 부모님을 봉양함에 있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하는가를 물으며 학습자의 효에 대한 마음가짐을 정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효에 대한 가르침

자유(子游)가 효에 대하여 물었다. 공자가 말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효도라고 하면 그저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잘 봉양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없이 보살피기만 한다면 개와 말을 보살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⁵⁴⁾

52) 『孟子』, 『離婁章』: 孟子曰 道在爾而求諸遠, 事在易而求之難. 人人親其親、長其長而天下平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가까운 곳에 있는데 저 먼데서 구하며, 일이 쉬운 곳에 있는데 저 어려운데서 구하니, 사람마다 그 아버지를 친하며, 그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면 천하가 평안할 것이다.”

53) 『墨子』, “若使天下兼相愛 國與國 不相攻 家與家不相亂 盜賊無有 君臣父子 皆能孝慈 若此則天下治 故聖人以治天下爲事者 惡得不禁惡而勸愛 故天下兼相愛 則治 相惡則亂” “만약 천하로 사람들로 하여금 아울러 서로 사랑하게 한다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경하지 않고, 집과 집이 서로 어지럽지 않으며 도적이 있지 않고, 임금과 신하와 부모와 자식이 모두 효도하고 자애로울 수 있다. 성인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일삼는 자가 어찌 미움을 금하고 사랑을 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천하가 아울러 서로 사랑하면 다스려지고 서로 미워하면 어지러워진다.”

54) 『論語』, 『爲政』: 子遊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見馬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자유가 효를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요즘 사람들은 효도라고 하면 그저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잘 봉양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없이 보살피기만 한다면 개와 말을 보살피

이러한 효에 대한 텍스트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여 학습자의 확장적 사고를 고양시키는 것은 교수자의 몫일 것이다.

둘째, 論語의 중심사상인 ‘仁’이란 두(二) 사람(人)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어질다’의 의미로 쓰이지만 특정한 덕목을 지칭할 때 뿐만 아니라, 모든 덕목을 포괄할 때도 쓰인다. ㉠교과서의 ‘周而不比’⁵⁵⁾는 공평무사한 인간관계, ‘成人之美 不成人之惡’⁵⁶⁾는 타인의 선을 돕고 악을 막음, ‘己所不欲勿施於人 己欲達而達人’⁵⁷⁾은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仁을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삽화를 제시하여 관련 문장을 쓰도록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⁵⁸⁾



위 삽화를 통하여 학습자가 仁에 대하여 다문화적인 차원에서 仁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자하는 仁의 思想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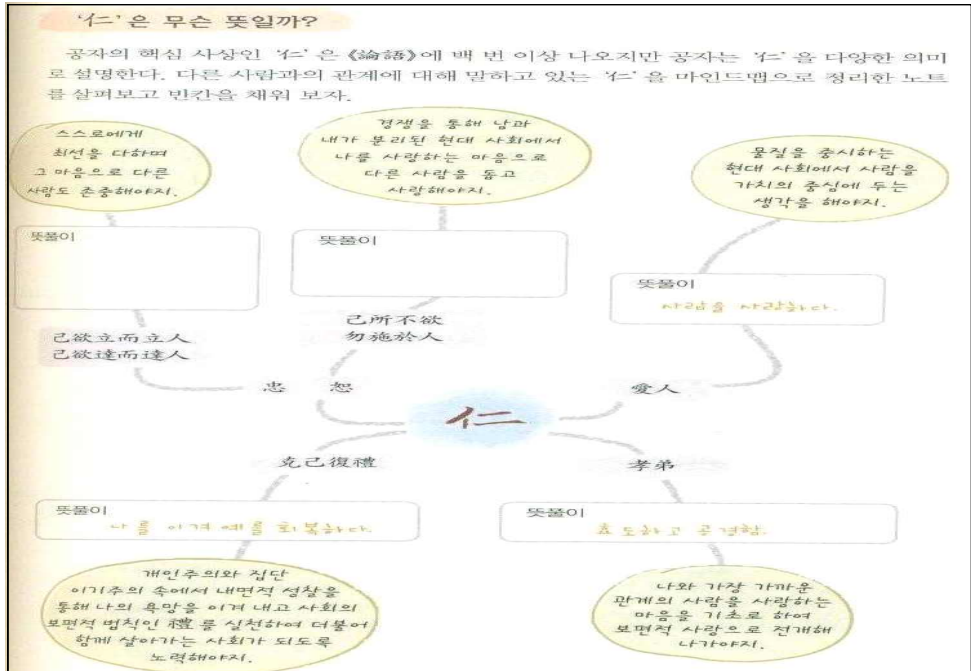
55) 『論語』, 『爲政』: 子曰 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두루 사랑하고 편당하지 않으며, 소인은 편당하고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

56) 『論語』, 『顏淵』: 子曰 君子之美 不成人之惡 小人 反是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 남의 악을 이루어주지 않으니, 소인은 이와 반대이다.”

57) 『論語』, 『雍也』: 夫仁者己 所不欲勿施於人 己欲達而達人 “ 인자는 자신이 서고자 함에 남도 서게 하며, 자신이 통달하고자 함에 남도 통달하게 하는 것이다.

58) 김연중(2011)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교학사. 238면.

☐교과서에서는 ‘깊이보기’에서 仁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여 학습자에게 仁에 대하여 바른 정의를 내리면서 仁에 해당하는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탁월하다.⁵⁹⁾



仁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마인드맵을 보여줌으로써 학습자 스스로가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殺身成仁’과 관련된 문장 및 논리논술을 찾아보면 ☐교과서에서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⁶⁰⁾(사리를 구하여 인을 해치는 일이 없고 몸을 죽여 인을 이루는 일이 있다.)라는 문장을 제시하여 이기적인 사고가 팽배한 현시점에서 학생들이 좀 더 나를 희생하고 타인을 위한 배려를 배울 수 있게 하는 텍스트이다. 이것에 대한 예로 열차가 들어오는 상황에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는 장면의 그림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에게

59) 신표섭(2011)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대학서림, 147면.

60) 『論語』, 『衛靈公』: 子曰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구하여 인을 저버리지 않으며 스스로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

仁을 이루는 방법과 자신에 경우에 대입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¹⁾



학습자는 한 컷의 그림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이 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5종 교과서에서 전반적으로 학습자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창의성을 고양시켜 줄 수 있는 논리논술에 적합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요즘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하여 墨子の ‘兼愛說’ 과 관련된 논리 논술 문제를 [D]교과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문 문장 학습 뒤에 학습자가 兼愛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⁶²⁾

(1)은 인종차별, (2)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나타낸 글이다. 목자의 兼愛와 연관 지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자.

- 인종적 편견 때문에 특정한 인종에게 사회적, 경제적, 법적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 인종차별이다. 나치스의 유대인 박해, 백인의 황화론(黃禍論), 미국과 남아프리카의 흑인차별 등이 대표적이다.
- 다문화 가정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한 가정으로 한 가족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단일 민족 국가였던 대한민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다문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아직도 많은 차별과 편견을 받고 있다고 한다.

[D]교과서의 경우는 ‘溫故知新’ 코너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넣어 학습자에게 직접적인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³⁾

61) 김언중(2011)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교학사, 238면.

62) 송재소(2011)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다락원, 190면.

활동 2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의 스승이면서 동시에 제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음 문장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올리며 빈 칸을 구체적인 사례로 채워 본 후, 각자의 생각을 발표해 보자.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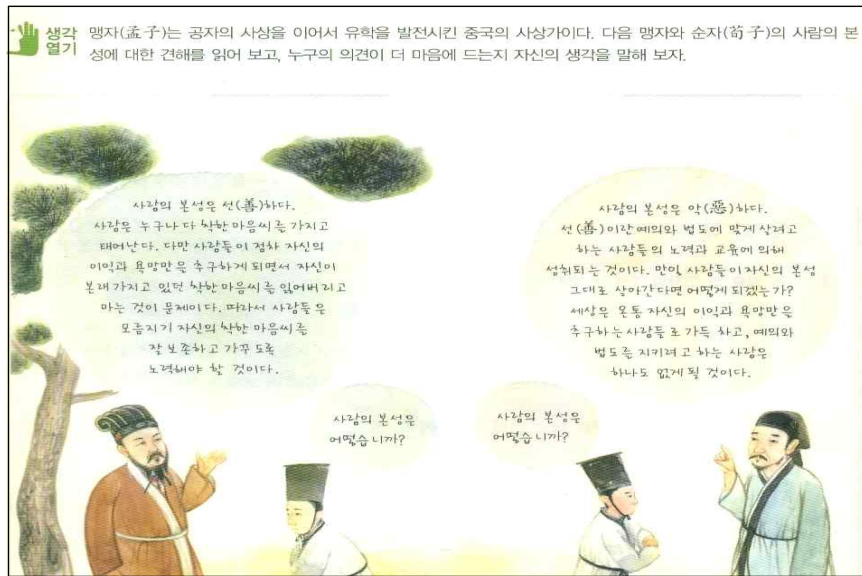
擇其善者而從之의 경우

其不善者而改之의 경우

⇒

⇒

☐ 교과서의 경우는 소단원 도입부에 있는 ‘생각열기’에서 본문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나 사상가의 생각 전반에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제시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힌 후에 본문학습을 하여 흥미와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⁶⁴⁾



☐ 교과서에서가 가장 논술에 가까운 문제를 제시하며 학생들에게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63) 신표섭(2011)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대학서림, 148면.

64) 박성규(2011)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두산동아, 186면.

㉠, ㉡, ㉢, ㉣ 교과서에서는 논리논술에 적합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교과서의 경우는 논리논술에 연계할 수 있는 문제들이 부족하다. 반면 ㉤ 교과서의 경우는 본문해석에는 충실하나 ㉠, ㉡, ㉢, ㉣ 교과서와 같은 문제들의 제시가 없다. 소단원 지면이 다른 교과서는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 교과서만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 내에서 분량을 더 편성하여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문제를 더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본문학습을 한 후에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논리 논술 문제를 교수자가 따로 준비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3. ‘문화읽기자료’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기존의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한자’, ‘한자어’, ‘한문’이라는 내용체계가 ‘한문’, ‘한문지식’으로 변한 것이다. ‘한문’영역에서 ‘문화’영역의 영역별 내용은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익힌다.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⁶⁵⁾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상의 ‘문화’ 영역의 학습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각 교과서에서는 ‘문화’ 관련 코너를 마련하여 학습자에게 국문으로 읽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표는 5종 교과서 ‘經書’와 ‘諸子書’ 소단원의 문화 읽기 자료들이다.

65)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3』, 교육과학기술부, 33면~36면

<표 19> 『한문 I』 교과서 문화읽기 자료

	문화 관련 영역	문화 내용
㉠	생각더하기 어휘산책	- 공자가 꿈꾼 세상 - 野合(야합) - 공자출생의 비밀 - 맹자의 성선설 - 集大成(집대성) - 공자의 덕성 - 순자의 성악설 - 度量(도량) - 자와 되
㉡	읽어보기 한문知識人	- 인성과 개성을 중시한 공자의 교육 -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 - 나비가 된 莊周(장주) - 선인들의 字(자)와 號(호) - 墨悲絲染 - 제자백가(諸子百家)
㉢	깊이보기 전통과 상식	- ‘仁’은 무슨 뜻일까? - 맹자의 생각들 - 노자와 대화 - 四書(사서) - 五經(오경)
㉣	문화읽기	- 학문의 길 - 논변체 산문 - 도덕주의와 법치주의
㉤	문화산책 본문관련 읽기자료	- 四書三經(사서삼경) - 성균관(成均館) - 오행과 오상 - 諸子百家 - “논어”는 어떤 책인가?(본문관련읽기자료) - 맹자는 어떤 사람인가?(본문관련읽기자료) - 유학사상과 도가사상

대체적으로 본문관련 ‘문화’ 내용을 한글로 제시하고 있다. 각 교과서마다 제공되어 있는 읽기자료는 학습자에게 동양문화와 본문학습을 돕는 자료들이 선별되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읽기자료로 제시하기는 했으나 학습방법에 대하여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문화자료를 그냥 한번 읽고 마는 자료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게 할 것인가는 교수자의 몫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글로 된 읽기 자료가 의미 있는 학습 자료가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그룹별 과제 학습을 위한 활용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읽기자료는 대체적으로 본문학습과 연관 있는

자료이다. 본문학습을 한 후 깊이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룹별 과제를 제시하여 발표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본문학습과 관련이 있는 孔子와 孟子的 사상을 문화읽기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교과서 외에 孔子, 孟子, 등의 관련 자료들을 깊이 있게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본문출전이나 내용과 관련된 성어를 찾아보게 하는 과제학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成語學習의 경우는 학습자가 문장학습보다 비교적 쉽다고 느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교과서의 경우 『論語』, 『孟子』의 본문 내용관련 성어를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어 본문학습 뒤에 자연스럽게 成語學習까지 이어져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다.

둘째, 본문과 문화읽기자료를 통한 짧은 상황극을 해 볼 수 있다. 즉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설정하여 학습자에게 스토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여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가정을 하고 내용이해를 하도록 한다면 더욱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질수 있다.

셋째, 토론수업을 할 수 있다. 다음은 ㉠교과서의 ‘문화읽기’ 자료 중 ‘도덕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자료이다.⁶⁶⁾

다음 두이야기는 아들이 ‘아버지가 양을 훔친 것을 그 아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음 두 이야기에서처럼 가족관계와 국가관계의 이익이 상충할 때에, 올바른 처신은 무엇이며, 또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이야기해보자.

(가) 섬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우리 마을에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이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공자가 대답했다. “우리 마을에도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는 자식의 잘못을 감추고, 아들은 아버지의 잘못을 숨기니, 정직함이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 초나라에 직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직궁은 이 사실을 관가에 고발하였다. 초나라 재상은 “직궁을 죽여라. 비록 임금에게는 진실을 고하였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는 비뚤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며 직궁을 죄인이라 판결하였다. 초나라 재상이 직궁을 죽이자, 초나라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군주에게 알리는 자가 더 이상 없게 되었다.

66) 김용재(2011)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더텍스트, 183면.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학습자가 읽고 생각해보도록 해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토론의 형식에 맞추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토론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습자가 좀 더 확장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좋은 학습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문과에 읽기자료로 제시되고 있는 문화관련 자료를 학습자가 어떻게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經書’와 ‘諸子書’의 경우 중국의 문헌에서 가져온 것이 많기 때문에 배경을 알고 학습한다면, 겉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문화’ 학습에 대한 관심은 漢文教科 뿐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화두가 되는 부분이다. 다른 교과에서도 문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교과서에 녹여서 학습자에게 전달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실정이다. 한문과의 교육과정에서의 ‘문화’ 영역이 신설된 것은 이러한 관심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을 채우기 위한, 또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어쩔 수 없이 실린 문화자료가 아닌 내실 있는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과서 집필진의 노력과 학교현장에서의 교수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자기주도학습 평가’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본 절에서는 소단원에서 제시한 목표가 평가에 잘 반영되고 있는가와 평가문제가 적절한 문제인가를 살펴보고 본 연구자의 의견을 제언하고자 한다.

허연구는 한문과 평가는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를 기준으로 각 내용 영역의 학습요소를 학습자가 달성했는지 파악하

는 활동이며 이를 위해 한문과에 적합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평가결과를 교수·학습에 재투입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⁶⁷⁾

본장에서 분석하고자하는 것은 5종의 교과서가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를 기준으로 각 내용 영역의 학습요소를 학습자가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각 교과서 별 학습목표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0> '經書'와 '諸子書' 단원의 학습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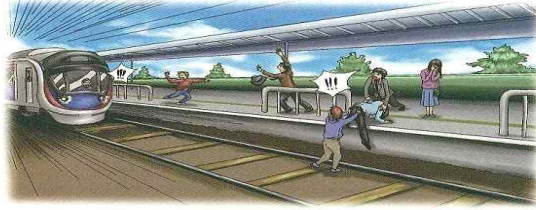
	소단원명	학습목표
㉞	32.군자의 도 孔子	- 군자의 인격 특질을 이해한다. - '仁'의 의미를 이해한다. - 문장 성분의 도치를 안다
	33.대장부의 기상 孟子	- '大丈夫'의 인격 특질을 이해한다. - '浩然之氣'의 의미를 이해한다. - '與·而'의 쓰임을 안다.
	34.삶에 대한 통찰 諸子	- 노장사상을 이해한다. - 순자의 사상을 이해한다. - 묵자의 사상을 이해한다. - 비교법을 안다.
㉟	24.孔子, 孟子공자왈맹자왈	- 공자와 맹자의 사상 이해 - 문장성분의 도치 이해 - '연쇄', '중첩'의 이해
	25.老子, 莊子무위자연의삶	- 노장사상의 이해 - 장자 사상의 이해
	26.孫子, 墨子사상가의 생각	- 손자 사상의 이해 - 묵자 사상의 이해 - 百, 與의 쓰임
㊸	16.인간과인간의관계-孔子	- 한문 단문을 끊어 읽을 수 있다. - 문장 성분이 생략된 문장의 구조를 알 수 있다. - 인간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17.인간과 사회의 관계-孟子	- 足의 여러 가지 뜻을 알 수 있다. - 다양한 접속사의 쓰임을 이해할 수 있다. - 맹자의 왕도정치를 현대 사회에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

67) 허연구(2010), 「한문과 영역별 평가 문항 유형의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를 지닐 수 있다.
	18.인간과자연의 관계-老子	- 使의 쓰임을 알 수 있다. - 연쇄의 수사법을 알 수 있다. - 자연을 대하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	33.공자	- ‘不~乎’의 쓰임을 이해한다. - 비유법을 이해한다. - 경문과 주석을 구분하여 안다.
	34.맹자·순자	- ‘使’, ‘豈~哉’의 쓰임을 이해한다. - 반어형의 문장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 성선설과 성악설을 이해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35.한비자	- ‘於’, ‘以’, ‘哉’의 쓰임을 이해한다. - 감탄형의 문장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 한비자의 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본다.
㉡	23.대학과중용	- 문장의 수사법을 이해한다. -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안다. - 허사의 쓰임을 안다.
	24.논어	- 문장의 구조를 안다. -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25.맹자	- 한문산문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안다
	26.노자와 장자	- 한문산문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 문장의 수사법을 이해한다. - 한문 산문의 문체와 특징을 이해한다.

㉠교과서의 경우 학습목표를 소단원의 평가에 모두가 반영시켜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 학습목표의 내용은 교과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즉, 본문풀이나 문법 설명 등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학습목표가 평가에 반영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에서 학습목표의 ‘仁’의 의미를 이해, 浩然之氣의 이해 등은 학습자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삽화와 함께 적절한 내용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유도하고 있다.⁶⁸⁾

2 다음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말을 써 보자.



3 다음 글은 공자가 仁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한자를 써 보자.

□는 같을 어(如)자 아래에 마음 심(心)자를 쓴 것입니다. 즉 남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픈데 저 사람은 얼마나 배고플까, 내가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이처럼 남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 □입니다.

1 그림에서 효연지기를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1) 바늘로 눈을 찔리면서도 깜박거리지 않고, 모욕을 당하면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고 반드시 보복하는 사람



(2) 이기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길 것처럼 대드는 사람



(3) 부예를 연마하여 천만 명과도 대적할 수 있는 사람



(4) 의를 실천하며 가난이나 험박 속에서도 당당한 태도로 사는 사람

또한 본문의 내용으로 ‘大丈夫란 무엇인가’를 도식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학습할 수 있는 평가문제를 제시하고 있다.⁶⁹⁾

본문을 읽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를 써 보자.

	거처하는 곳	서는 곳	행하는 것
大丈夫	廣居(仁)	(㉠)	大道(義)
	(㉡)와 (㉢)과威武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		

68) 김언중(2011)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교학사, 244면.

69) 김언중(2011)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교학사, 245면.

그러나 목표에 제시된 ‘문장성분의 도치, 與·而의 쓰임, 비교법 등의 문법적 요소가 소단원 평가 및 대단원평가에서 제시되지 않아 학습자가 목표를 모두 달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

☐교과서의 경우도 모든 목표가 평가에 반영된 것은 아니다. ‘사상의 이해’라는 목표는 ‘본문이해 길잡이’나 ‘읽어보기’ 자료로 제시된 경우가 많았고 ‘百, 與의 쓰임’의 경우는 소단원평가나 대단원평가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상의 이해’라는 목표의 평가의 경우 다음 문제에서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⁷⁰⁾

○ 여러 가지 기계의 사용으로 우리는 편리함을 누리지만, 때로는 기계가 우리의 삶을 속박하기도 한다. 모둠을 나누어 ‘기계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토론해 보자.

기계를 쓰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본문의 내용을 배우고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제시하고 있는 老子の 思想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위의 문제로 요즘의 기계를 사용하여 편리한 생활을 하고 효율을 누리는 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노자의 사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하고 있다.⁷¹⁾

(1)은 인종 차별, (2)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나타낸 글이다. [나]의 주제와 연관 지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자.

- (1) 인종적 편견 때문에 특정한 인종에게 사회적, 경제적, 법적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 인종 차별이다. 나치스의 유대인 박해, 백인의 황화론(黃禍論), 미국과 남아프리카의 흑인 차별 등이 대표적이다.
- (2) 다문화 가정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한 가정으로 한 가족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단일 민족 국가였던 대한민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다문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아직도 많은 차별과 편견을 받고 있다고 한다.

위의 평가문제도 兼愛에 대한 묵자의 사상이 문제의 해결책의 중심임을

70) 송재소(2011)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다락원, 184면.

71) 송재소(2011)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다락원, 190면.

학습자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㉔교과서의 경우 ㉔, ㉔교과서와 다르게 소단원 학습목표를 ‘온고지신’과 ‘점검하기’에서 문제로 모두 다루어 학습자의 학습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소단단원의 학습목표 중 ‘인간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맹자의 왕도정치를 현대 사회에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자연을 대하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등을 ‘온고지신’에서 학습목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학습자의 사고력을 신장 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⁷²⁾

지식은 힘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이롭도록 지식을 활용하라. 자연은 인간에게 순종하고 정복되어야 할 존재이다. -베이컨-

활동 2 베이컨의 말을 토대로 지식을 활용하여 자연을 변형시켜 인간의 생활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발휘해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어 보자.

아이디어	이유
예 유전자 변형을 통해 닭다리가 여러 개	예 닭다리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져
인 닭을 생산.	

또한 ‘한문단문을 끊어 읽을 수 있다’의 학습목표에 대한 평가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학습자가 ‘읽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⁷³⁾

다음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은 것은?

① 有, 朋自, 遠方來, 不亦樂乎?
 ② 有, 朋自遠方來, 不亦樂乎?
 ③ 有朋, 自遠方, 來不亦, 樂乎?
 ④ 有朋, 自遠, 方來不亦樂乎?
 ⑤ 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

㉔교과서는 학습목표를 충실하게 단원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평가문제

72) 신표섭(2011)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대학서림, 160면.

73) 신표섭(2011) 외,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대학서림, 149면.

형태의 다양성을 보여주어 학습자에게 딱딱함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는 학습목표가 ‘본문연구’ 등에서는 잘 설명되어 있으나 ‘비유법의 이해’, ‘使의 쓰임’, ‘以,哉의 쓰임’에 대하여 평가문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33과의 경우 경문 외에 주자와 다산의 주를 함께 제시한 점은 다른 교과서와 차별되고 창의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다소 어려운 면이 있을 듯하여 평가문제에서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제시하여 두 주석의 차이를 자신의 관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교과서의 경우는 ‘점검하기’의 소단원 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본문이해 학습’, ‘한문지식’, ‘활용학습’에서 본문에 대한 설명 후 간략하게 평가문제를 제시하여 학습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문법적 요소의 ‘한문지식’을 ‘한문지식’이라는 코너에서 다른 교과서보다 많이 다루고 있어 한문독해를 바르고 정확하게 할 수 돕고 있다. ‘활용학습’은 한자·어휘를 학습하고 평가하는 부분으로 학습자에게 부수 익히기, 음이 여러 가지인 한자, 모양이 비슷한 한자, 성어 익히기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에게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문법적 요소의 학습이 다른 교과서보다 많은 편이라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문학습과 관련된 성어의 제시는 학습과 연계되어 성어만 학습했을 때보다 학습의 효과가 높을 것이다. 대단원평가에서 한자, 어휘·성어, 본문평가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어 학습자가 한자에서 본문학습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평가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점이 타교과서보다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다.

㉢, ㉣교과서가 가장 학습목표를 평가문제에 잘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교과서가 평가문항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여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 결론

이상으로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적용한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5종의 ‘經書’와 ‘諸子書’ 단원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 보았다. 이전의 敎育課程과 달리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한자, 한자어, 한문’이라는 내용체계가 ‘한문’, ‘한문 지식’으로 변화된 점과 ‘읽기’와 ‘문화’영역의 강조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현행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간된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 5종의 ‘經書’와 ‘諸子書’ 영역을 살펴보고, 나아가 교과서에 나타난 ‘經書’와 ‘諸子書’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을 탐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인성함양에 깊은 관계가 있는 ‘經書’와 ‘諸子書’ 영역과 관련하여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 영역의 구성체계의 특징을 분석하고 교과서에 나타난 ‘經書’와 ‘諸子書’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Ⅱ장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적 이해’에서는 고등학교 漢文科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와 교육과정 內 ‘經書’와 ‘諸子書’ 부분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 ‘思想類 散文’만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았다. ‘漢文散文’ 영역에 ‘思想類 散文’을 함께 포함하여 다루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제Ⅲ장 교과서內 ‘經書’와 ‘諸子書’ 영역 분석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內의 글감의 수록 현황, 단원의 체제와 구성 방식, 중복 문장과 난이도, 한문지식과 문법 내용의 소화의 네 가지 범주에서 분석해 보았다.

제Ⅳ장 ‘經書’와 ‘諸子書’ 부분에서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독해

를 통한 교수학습방법, 논리논술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문화읽기자료’를 통한 교수학습방법, 자기주도학습평가를 통한 교수학습방법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 5종의 ‘經書’와 ‘諸子書’ 영역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읽기’ 학습을 위하여 5종의 교과서에서 懸吐를 하고 있다. 懸吐를 하여 학습자에게 ‘읽기’ 학습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같은 문장임에도 교과서별로 懸吐가 다른 경우가 있어 통일성을 기하여 학습자에게 懸吐에 대한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내용체계와 다르게 ‘문화’영역이 생기면서 다양한 문화 읽기자료가 교과서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읽기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교과서에 안내될 수 있어야 하며 교수자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셋째, ‘經書’와 ‘諸子書’ 글감이 고등학교 교과서라는 이유로 분량이 많아지고 중학교보다 급격하게 독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글감을 발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과정 편제상 중학교 과정에서 한문수업을 주당 한 시간도 이수하지 못하고 올라와 처음 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분량이 많고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외의 한자가 많이 쓰인다면 독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습자의 흥미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넷째, 평가에 있어서 학습목표와 평가문제가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학습목표에서 꼭 알아야 할 학습의 목표로 제시했다면 평가에서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필수일 것이다. 단지 학습목표와는 상관없이 본문문장 및 어휘풀이의 평가에 치중한다면 학습자는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經書’와 ‘諸子書’ 영역을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해설서에서의 ‘經書’와 ‘諸子書’ 영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經書’와 ‘諸子書’ 영역에 대한 교육이 소홀해질까 우려된다. ‘經書’와 ‘諸子書’는 자아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기의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인성과 관련된 텍스트가 많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영역에 비해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가 있는 만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해설서에서의 思想類 산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經書’와 ‘諸子書’ 관련 텍스트를 ‘어떻게 교과서에 녹여 집필할 것인가’에 대한 집필자의 고민이 반영되고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수자의 교수 방법에 대한 노력이 병행된다면 더욱 유의미한 한문 수업자료와 유익한 한문 수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經書’와 ‘諸子書’를 비롯한 思想類의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1. 基本資料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13』, 교육과학기술부.

김언중·조영호·박영숙『고등학교 한문1』, 교학사

송재소·조병덕·배기표·김호기·변유경, 『고등학교 한문1』, 다락원

신표섭·이윤찬·성진우·김준영·홍인기, 『고등학교 한문1』, 대학서림

김용재·류준필·류준경·권오순·김상선·김영선, 『고등학교 한문1』, 더텍
스트

박성규·윤재민·백광호·최승후, 『고등학교 한문1』, 두산동아

2. 單行本

김원중(1994), 『虛辭辭典』, 현암사.

정우상, 김용걸 공저(1991), 『한문문법신강』, 성신여대출판부.

3. 一般論文

이돈석(2013), 「漢文 教科 經書 教育에 對한 一考 - 2007 中學校 教育課程 1
學年 所載 經文을 中心으로」, 『漢字漢文教育』 제30집, 한자한문교육학회.

이돈석(2011),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四書 教育 내용에 對한 高찰」, 『漢字
古典研究』 제23집, 韓國漢文古典學會

金容載(2013), 「중고교 漢文 교과서에서의 ‘經書’ 교육에 關한 발전적 제언」,
『漢文古典研究』 제27집, 韓國漢文古典學會

이동재(2007)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한문교과서 개발의 방향」, 『
한자한문교육연구』, 제1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원용석(2004)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내용 및 수준의 문제 고찰」, 『한자한문 교육연구』 제13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장호성(2004) 「한문과 교재의 문제」, 『한문교육연구』 제22집, 한국한문교육학회.
- 김왕규(2008), 「한문 교과서 단원 구성의 원리와 방안」, 『漢文教育研究』 제31호, 한국한문교육학회.
- 류준필(2008),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교과서의 도입부 내용 설정과 ‘내용 체계’의 연계성 강화 방안」, 『東方漢文學』 제34집, 동방한문학회.
- 윤재민(2008), 「2007년 개정 漢文科 教育課程의 읽기 영역 분석」, 『漢字漢文教育』 제21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4. 學位論文

- 전명희(2003),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수록된 사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윤숙(2004),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보이는 사서경문의 내용과 효율적 지도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인도(2005), 「중등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論語의 해석에 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일순(2011), 「토론과 논술을 활용한 한문과 교육방법 연구 : 孟子출전 본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연교(2011), 「중학교 1 한문교과서 사서경문 의미분석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식(2012), 「역대 한문교과서에 인용된 경서구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조현(2010), 「한문 학습자의 오역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연구(2010), 「한문과 영역별 평가문항 유형의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n Analysis into the Parts of “Confucian Classics” and “Books of the Philosophers” in High School 「Chinese Character I」
Textbooks

- Centered on the Revised Curriculum, 2007 -

Kim Eun-ju

Sino-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research aims at systematically organizing the characteristics and goals of the high school curriculum of “Chinese character” according to the revised curriculum, 2007, and comprehensivel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chapters on Confucian classics and books of philosophers included in high school 「Chinese Character I」 textbooks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iculum. A variety of standards were established and analyzed in detail for the structure and system of the chapters on Confucian classics and books of philosophers in the textbooks, selected materials, the grammar of Chinese characters an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e study began under the presumption that the areas of ‘Confucian classics’ and ‘books of philosophers’ should consist of the contents of (1) personality and creativity, (2) development of discussion and persuasive power, and (3) proper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Therefore, the five kinds of authorized high school 「Chinese Character I」 textbooks based

on the revised curriculum (2007) were examined as the original script, and the systems and contents of these textbook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Chapter II, under the title of Basic Understanding of the Revised Curriculum, 2007, the study analyzed the goals and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of 'Chinese character' and the educational guidance and contents system of Confucian classics and books of philosopher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manual of the curriculum 2007 doesn't define "philosophical Chinese writings (classics)" separately, but includes "philosophical one" in the area of "Chinese prose", and the educational guidance in this part on the Confucian classics and books of philosophers was analyzed.

In Chapter III, first, the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all the writing materials from the Confucian classics and books of philosophers included in the five kinds of authorized high school 「Chinese Character I」 textbooks. As the result, it has been proved that the scriptures from 「the Analects of Confucius」 appear with an overwhelmingly higher frequency compared to that from other books of philosophers. The reasons for this have been analyzed that the scriptures from 「the Analects of Confucius」 are short, which makes it possible to explain the sentences through direct translation, and that learners rarely need to find philosophical meanings from the sentences in Chinese.

Second, through examination of the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the chapters, the study has been found that almost all areas of Confucian classics and books of philosophers are located in the latter part of the whole chapters. The biggest change in the revised curriculum, 2007, is the inclusion of the areas of "reading" and "culture." All the textbooks add

Korean endings or particles to Chinese phrases and use punctuation to emphasize "reading." Also, in terms of the organization of the textbooks, an extra space is used for "Understanding of Culture" section.

Third, the difficulty level of the included original texts was studied and analyzed on the presumption that it is important to choose the writing materials appropriate for learners. If students have to learn excessive amount of Chinese character for the reason of study in a high school, they can regard it as a difficult and uninteresting subject in the current educational situation where it is an optional course. It is an urgent problem of Chinese character education to select the materials whose amount and contents are proper for learners and which can arouse their interest.

Fourth,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knowledge about Chinese characters and its grammar in the textbooks was investigated. As the result, the knowledge of Chinese characters and grammar was helpful for their reading of the texts, but the insufficient explanation makes the learners' self-directed study a bit difficult. Of course, it is also not desirable to offer too much knowledge about Chinese characters and grammar and increase learners' burden. Still, it is better to help students digest what they learn in the relevant chapter so that they can read main texts.

Fifth, the study tried to find a desirable teaching method by analyzing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 of the chapters on the Confucian classics and books of philosophers in the five kinds of textbooks published according to the revised curriculum, 2007. i) As correct reading with punctuation is important for proper "reading", all the textbooks have Korean endings in Chinese phrases. It is also guided how Chinese characters as polysemy are used with a certain sound and meaning in a sentence. ii) For a better

status of Chinese character as a textbook subject, it needs to be connected to the college entrance system, especially in high school curriculum. The educational goal of Confucian classics and books of philosophers of Chinese character is to understand ancestors' life and wisdom, and to develop good values and personality. This issue of value system and personal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pters on Confucian classics and books of philosophers. Accordingly, the issue of values and personality will offer good materials as discussion and persuasive writing questions for entrance into college. iii) One of important features of the revised curriculum, 2007, is the new inclusion of the area of "culture." All the textbooks offer "culture" section. These materials in Korean help students not only to figure out texts, but also to understand the cultural area of Chinese character with rich data about Eastern culture. Therefore it is not enough to read it just once and the roles of teachers are important. iv) The achievement of the goals in each chapter has to be evaluated through assessment, yet sometimes it is limited to sentence translation and explanation of words regardless of the goals. However, it is encouraging that some textbooks help students develop thinking ability and reflect learning goals faithfully.

The study analyzed the areas of Confucian classics and books of philosophers and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s of the five kinds of textbooks published following the revised curriculum of Chinese character, 2007, but most of the contents are brief and simple. Philosophical Chinese writings (classics) can have a role of encouraging students to think about the alternatives for the most serious issues in modern society, such as loss of humanity and increasing egotism. Moreover, Confucian classics and books of philosophers can be of help to the education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with the most appropriate form.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on philosophical sentences in Chinese character textbooks can create enough data as the foundation of personality education.